

한국문학탐방Ⅲ 2차 발표 자료집

2023

5월 8일 (월)

강원도 춘천시 일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I. 기본 사항

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i
2. 준비물 및 주의사항	ii
3. 버스 좌석 배정	iii
4.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V
5. 한국문학탐방 지도 & 탐방지 정보	VI

II. 발표 자료

1. 도이장가	
1.1 [김다은] 예종의 뜻이 담긴 <도이장가(悼二將歌)>	1
1.2 [박요한] 새로운 나라, 태조 왕건을 도운 신숭겸	3
2. 신석정	
2.1 [이상훈] 영원한 청년작가 김유정	4
2.2 [심현진] 김유정의 문학세계	5
2.3 [엄서진] 산골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6

III. 추가 자료

1. [김명준]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2. [이병기] 음식명에 붙는 접두사 ‘막-’에 대하여

I-기본 사항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 신서인 교수님

인솔교수 : 김명준, 이병기, 서은혜, 이한범 교수님

학생회장 : 정경원 (010-3456-6871)

부학생회장 : 박민경 (010-5809-1191)

답사부장 : 정병규 (010-9208-8739)

조교 : 이혜미 (010-7464-3556)

조	구분	작가	작품	지역	유적지
1조	고전시가	예종	‘도이장가’	춘천	장절공신송겸장군묘역
2조	현대소설	김유정	『동백꽃』, 『봄.봄』 등	춘천	김유정문학촌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준비물

답사 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 옷과 신발, 개인 약, 우산 등

◆ 주의사항

1. 탐방 중 주의사항

- (1) 인솔자(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 (2) 학교 및 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 (3) 정해진 일정 시간을 엄수한다.
- (4)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 (5) 발표시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발표한다.
- (6)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한다.
- (7) 자유 관람 시에도 안전을 위하여 조별로 모여서 이동한다.
- (8)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 (9) 도로 횡단 시 차량에 유의한다.
- (10)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11)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인솔자에게 빠르게 알린다.
- (12) 도난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 (13) 서로가 배려하며 즐겁게 탐방한다.

2. 차량 내 주의사항

-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2) 차량번호를 숙지해둔다.
- (3) 탐방 차량임을 확인하고 탑승한다.
- (4) 승차하기 전 신발을 털어 차내 먼지를 최소화한다.
- (5) 하차 시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모아서 정리한다.
- (6) 하차 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표한다.

버스 좌석 배정-1호차

기사님			계단	
정병규	이혜미		신서인 교수님	
서은혜 교수님			이한범 교수님	
김다은	박민경		김지원	김도운
권소린	김경아		김태준	김호원
김정우	김무원		윤송이	오한별
송문규	윤종우		이경민	이성민
윤준혁	이강섭		이지희	장예주
이준우	황대중		최석호	최원찬
전예진	정지은		이지오	홍윤주
허준희	홍예원		NGUYEN THI TAM	PHUNG THI NHUNG
박세현		최주아	엄서진	심현진

버스 좌석 배정-2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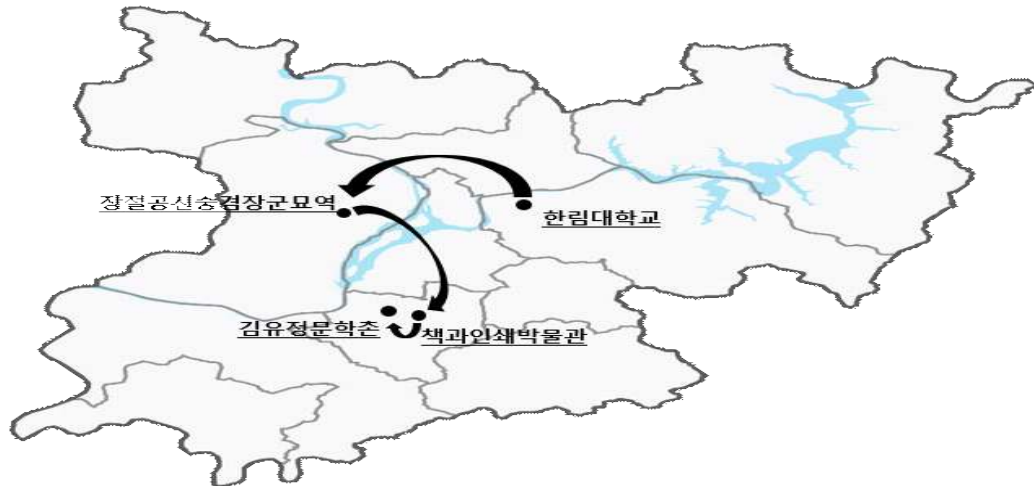
기사님		계단	
박요한	정경원	이병기 교수님	
이상훈	고진현	김명준 교수님	
정이슬	이정민	조민서	신지수
김성은	김소은	김현서	김현우
박선호	박이삭	설세현	소순규
권혁준	우진수	유영후	이경준
조영찬	정종환	정지우	임소연
조예원	진성지	황지선	홍예슬
김진형	하현준	한민서	PHAM THI HOA
이인준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강원도 춘천시 일대

구분	5/8(월)	비고
13	13:00 집합 (학교-일송기념도서관 앞) 13:10 출발 (학교-일송기념도서관 앞) 및 이동 (25분) 13:35 장절공신승겸장군묘역 도착	
14	14:40 출발 및 이동 (25분)	
15	15:05 책과인쇄박물관 도착	
16	16:40 출발 및 이동 (5분) 16:45 김유정문학촌 도착	
17	17:40 출발 및 이동 (15분) 17:55 석식 식당 도착	
18	18:50 출발 및 이동	
19	19:00 도착 (학교-일송기념도서관 앞) 및 해산	

한국문학탐방 지도 & 탐방지 정보



구분	지역	장소	전화번호	주소
답사지	춘천	장절공신송검장군묘역		강원 춘천시 서면 신송검로 272-21
	춘천	책과인쇄박물관	033-261-4650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춘천	김유정문학촌	033-264-9923	강원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156
식당	춘천	남부막국수본관	033-254-7859	강원 춘천시 춘천로81번길 16

Ⅱ-발표 자료

예종의 뜻이 담긴 <도이장가(悼二將歌)>

-<도이장가> 작품 소개 및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은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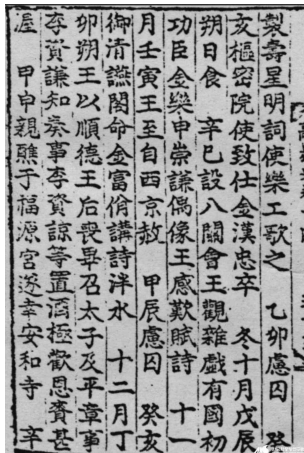
主乙完乎白乎
心聞際天乙及昆
魂是去賜矣中
三鳥賜教職麻又欲
望彌阿里刺
及彼可二功臣良
久乃直隱
跡烏隱現乎賜丁

<양주동의 해석/현대어역>

니를 오오로슬븐
막스몬 곳하늘 밋곤
넉시 가샤되
사막산 벼슬마 쏘 흥저
브라며 아리라
그뻘 두 공신(功臣)여
오라나 고든
자취는 나토신더

<김완진 해석/현대어역>

니리를 오오로슬븐
막스몬 곳하늘 밋곤
넉시 가샤되
석 맛도려 활자바리 가식와더
도타 두 공신(功臣)아
오래웃 고든
자취는 나토신더



님을 오롯하게 하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넋이 가셨으되
삼으신 벼슬은 높구나
바라보면 알리라
그 때의 두 공신(功臣)이여
오래 되었으나 곧은
자취는 나타나는구나

님을 오롯하게 하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넋이 가셨으되
몸 세워 하신 말씀
직분 맡으려 활 잡는 이 마음 새롭기를
좋다 두 공신(功臣)이여
오래도록 곧은
자취는 나타나는구나

<도이장가(悼二將歌)>는 1120년 예종(조선 제8대 왕)이 서경(西京:平壤)에 행차하여 팔관회(八關會)가 열렸을 때, 그 자리에 개국공신 김락(金樂)과 신송겸(申崇謙)의 가상(假像)을 만들어 참석하게 한 것을 보고, 왕이 그들의 공을 추도하여 지은 노래로, 이두식(吏讀式) 표기로 된 향가(鄕歌) 형식의 노래이고, 8구체(句體)를 4구씩 2분하여 지었다.

<도이장가>는 다른 향가들과 달리, 행의 구분 없이 표기되어 있다. 시상 및 내용 전개에 있어 <도이장가>는 <도이장시>와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신송겸·김락의 고사 → 가상희(假像戲: 가면극)에 대한 묘사 → 화자의 소감'으로 되어 있어, <도이장시>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이장가>의 7~8행을 보면, '오래 되었으나 곧은 자취는 나타나시도다.(久乃直隱跡烏隱現乎賜丁)'라는 구절이 있다. 논자에 따라 "오래 오래 곧은 자취는 나타내신저"나, "오랫동안 곧은 자취는 나타내실진저"로 해독되고 있다. 만약 이들 해독을 따른다면, <도이장가>의 화자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곧은 자취'가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원은 현재의 신하들이 신송겸, 김락과 같은 '충의'로써 자신과 국가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예종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도이장가>는 가상희에 대한 예종의 '소감'을 표현한 것이다.

<도이장시>에서 모범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고 <도이장가>에서는 그 인물이 현재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예종이 신료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고, 이렇게 예종은 신승겸과 김락을 문학적으로 포장하여 그가 바라는 신료상을 제시했던 것이다. 즉, 예종은 <도이장시>에서 신승겸을 둘러싼 반역과 패장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충의와 왕조 기틀의 조력자의 초상을 조각한 다음, <도이장가>에서는 신승겸의 초상을 활용하여 개경 세력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왕건으로부터 물려받은 충성의 장군인 신승겸을 문학적으로 가공해 대내 갈등 관계에 있던 개경 세력에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 <도이장시>와 <도이장가>이다. 이 노래들은 신승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철저히 걷어내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자, 군왕에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자로 포장한 다음 현재의 신료들에게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신승겸은 서경에서 왕건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종, 「향가와 그 한시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17, pp. 105-134.
김명준, 「신승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 예종의 <도이장가>·<도이장시>와 정조의 치제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pp. 45-70.

새로운 나라, 태조 왕건을 도운 신숭겸

- 장절공신숭겸장군묘역 소개 -

국어국문학과, 20181045, 박요한

신숭겸(申崇謙)은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나라가 전환이 되는 중요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자신의 주군이었던 궁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왕건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927년,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졌던 전투 당시 후백제 견훤이 이끄는 군대가 태조 왕건 주위로 모여 왕의 목숨이 위협받는 과정에서 신숭겸 장군이 대신 왕의 옷을 입고 전투를 하다 죽게 되었다.

신도비에 따르면, 왕건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장례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적군이 신숭겸의 머리를 가져가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장사를 지내고 장절(壯節)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숭겸의 묘는 후에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봉분을 세 개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신숭겸의 이러한 점이 왕권 강화와 관료들의 충성 권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족하다고 생각한 예종이 만든 것이 바로 <도이장가 (悼二將歌)>이다. 신숭겸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강원도 기념물, 신장절공묘역 (申壯節公墓域)』,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2333200210000, 2023.05.03.

김명준,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 예종의 <도이장가>·<도이장시>와 정조의 치제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pp.45~70.

영원한 청년작가 김유정

-김유정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71069 이상훈



김유정(金裕貞)은 1908년 2월 12일(음력 6월 17일) 강원도 춘천 실례마을에서 아버지 김춘식(金春植)과 어머니 청송 심씨의 2남6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조선 시대의 명문 양반 가문 중 하나인 청풍 김씨 집안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온 집안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몇 대째 춘천 실례마을에 살아오던 김유정의 가족은 서울에도 집을 마련하여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살았다.¹⁾ 김유정은 어려서부터 병약했으며 잦은 배앓이를 앓던 때에 아버지가 민간요법으로 그에게 담배를 배우게 했으며 이는 후에 폐결핵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²⁾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일찍부터 어머니를 잃어 생긴 모성의 부재는 후에 기생 박록주에 대한

한 사랑이 병적인 집착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김유정은 재동공립보통학교를 거쳐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그는 휘문보고를 졸업하던 때에 자신보다 네 살 연상인 박록주(朴綠珠)를 처음 보게 되었다. 김유정은 박록주를 보고 짝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구애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박록주가 나가는 술집 앞에서 밤새워 기다렸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고 한다.³⁾ 박록주에 대한 구애가 거절당하고 연희전문학교에서 제적까지 당한 그는 고향인 춘천 실례마을로 돌아가게 된다. 모성에 대한 동경과 박록주에 대한 미련은 여기저기 술을 파는 들병장수 여자들에게 이어졌고 들병이들을 찾아다니며 매일 먹던 술은 그가 앓고 있던 치질을 악화시켰고 늑막염까지 생겨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갔다. 1933년 다시 서울로 올라온 그는 늑막염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결핵까지 진단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

김유정은 1933년 첫 작품인 「산스골 나그네」 외 2편을 발표했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35년에 「소낙비」가 조선일보에 1등으로 당선되고 「노다지」가 입선됨으로써 그는 본격적으로 등단하게 된다. 그는 등단한 해에 단편 10편과 수필 3편을 발표했고 청탁이 오는 대로 밤새워 글을 썼다. 김유정은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소설을 써서 받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약을 샀다. 그는 1933년부터 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병마와 싸우던 김유정은 결국 1937년 마지막으로 소설 「따라지」, 「땡땡」 등을 발표한 후 세상을 떠났다.

김유정은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치질, 늑막염, 폐결핵을 앓으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과 고통을 소설을 쓰며 예술로 승화시켰고 짧은 작가 인생 속에 많은 작품을 후대에 남기게 되었다.

《참고문헌》

전상국, 『김유정: 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이재인, 「창조적인 작가 김유정」, 『시민인문학』 Vol.9,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pp. 55-69.

1) 전상국, 『김유정: 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pp. 13.

2) 이재인, 「창조적인 작가 김유정」, 『시민인문학』 Vol.9 No.-[2001],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pp. 61.

3) 전상국, 앞의 책, pp. 19.

김유정의 문학세계

- 김유정의 「봄봄」 작품해설

국어국문학과 20211047 심현진

김유정은 「봄봄」, 「동백꽃」에서 알 수 있듯, 강원도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으나 경성을 무대로 한 작품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의 도시소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일부에서는 “김유정의 소설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특징지을 때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설 자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김유정의 농촌소설이 중고등학교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기에 적합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농촌소설가로 정전화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⁴⁾ 그렇다면 농촌소설로 구분되는 1930년대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의 단편 소설 ‘봄봄’에는 어떠한 문학세계가 담겨있을까?

김유정의 작품 「봄봄」은 1935년 『조광(朝光)』에 발표된 것으로 1938년 간행된 『현대조선 문학전집 2』에 김유정의 대표작으로 실려 있으며 같은 해 간행된 단편집 「동백꽃」에도 수록되어 있다. 소설의 내용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나’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봄봄」이라는 표제의 봄의 반복은 신생(新生)이나 사춘기 또는 청년기의 표상이기보다는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인 안타까운 기다림, 또는 시간적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제목 ‘봄봄’의 상징성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봄봄’은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지만 단순히 계절적 배경으로서의 장치라고 볼 수 없다. 봄이 되면 ‘나’는 장인에게 성례를 요구하지만 결국은 장인의 회유책에 넘어가게 된다. 이는 이 작품의 결말과도 같은데, 이러한 결말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또다시 같은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을 암시하여 헤어날 수 없는 주인공의 암담한 현실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유정의 작품 「봄봄」의 특징은 일제 치하의 궁핍한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짙은 향토성과 해학을 통해 현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계층적 갈등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긴장감이나 비극적인 분위기보다는 해학이 가득 넘친다. 또한, ‘역순행적 구성’을 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소설은 주인공의 회상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절정 속에 결말을 삽입하여 ‘나’와 장인의 대결을 강조한 것은 결말에 드러난 갈등의 해소가 일시적임을 암시하고, 긴장감과 해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준다. 마지막으로 ‘바보 사위 이야기’라는 민담적 요소를 소설에 차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민담 설화의 모티프는 당시 민중들의 형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원천이 된다.

김유정 문학은 1930년대 한국문학의 보고(寶庫)에 해당한다. 김유정의 소설 「봄봄」 또한 1920년대의 리얼리즘적 지향과 1930년대 모더니즘의 새로움을 온전히 텍스트에 반영하면서 개성적인 언어로 풍자와 해학, 향토적 서정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작가는 비극적 현실의 극대화 속에 놓인 결핍된 주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당대 현실과 조응하며 비극적 진정성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한 서사적 감수성을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궁핍이라는 질곡을 통해 안타까이 비극적으로 형상화한 작가가 바로 김유정이다.⁵⁾

《참고문헌》

김유정학회,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 소명출판, 2019.

4) 권은,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 소명출판, 2019, pp.13-14.

5) 오태호,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 소명출판, 2019, pp.113-114.

산골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 김유정의 동백꽃과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211051, 엄서진

동백꽃은 산골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나흘 전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내밀었으나 '나'는 거절한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의 불기짹개를 때리며 '나'를 약올린다. 하지만 '나'는 점순이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점순이네가 마름 집이기 때문에 대들지 못해 분해한다. 점순이는 틈틈이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에게 싸움을 붙인다. 이에 '나'는 나의 집 수탉에게 고추장까지 먹이고 점순이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이기지 못한다. 점순이는 겨우 기운 차린 '나'의 닭을 잡아다 또다시 닭싸움을 시킨다.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나'는 이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수탉을 단대로 때려죽인다. 자신의 행동에 놀란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점순이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며 동백꽃 속으로 '나'의 어깨를 짚은 채 쓰러진다. 조금 뒤 점순이 어머니의 점순이를 찾는 소리에 점순이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나'는 산으로 달아난다.

「동백꽃」은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다소 짓궂은 점순이와, 그에 비해 어수룩한 '나'의 풋풋한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의 성격은 무뚝뚝하고 눈치가 없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겁이 많다. 반면, 점순이는 '나'에게 먼저 말을 붙이고 감자를 주려고 하며,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히고, 자신의 집 수탉이 죽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점순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대범하다. 이렇듯 '나'와 점순이의 대조적인 성격이 작품에서 각자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은 해소가 되고, 둘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나' 또한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점순이를 싫어하지는 않았다. 이제 시작되는 이들의 풋풋한 사랑이 동백꽃의 노란 색과 향과 잘 어울린다.

「동백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과거 일어났던 일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이는 읽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둘의 갈등을 점점 끌어올려 긴장감을 불어넣어 단조로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준다.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와 익살스러운 문체 또한 이 작품이 지닌 매력 중 하나이다.

1930년대의 한국 문학은 현실에 대한 갈등과 회의, 회피, 자기 만족 속에서 문학의 다양한 성과와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강화된 파시즘 통치체제와 신간회 및 카프의 해체로 인해서 이 시기의 문학은 정치주의의 탈피가 표방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경우와 그것을 회피하여 감상적 세계나 통속적 흥미 추구에만 빠진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창작의 기교와 형식면에서는 시어가 세련되었고, 소설이 장편화 되었으며, 이론 면에서는 서구 문예비평 이론의 본격적인 수용이 있었다. 이러한 때의 김유정의 작가적 시각은 농촌현실에 뛰어들어 농민의 생각과 정서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리면서도 오직 단편소설의 양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그 기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⁶⁾

김유정의 문학 세계는 회화적이고 골계적이다. 그만큼 그의 세계 인식의 방법이나 태도는 인간 회화적인 해학미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김유정은 어둡고 삭막한 농촌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농민들의 생활 양식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백꽃」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반영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순박하고 어리석은 당대 농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⁷⁾

6) 김영화, 「김유정연구」, 『고려대학교어문논집』16, 1975, pp. 128-129.

7) 이현주, 「김유정 농촌소설에 나타난 "향토" 표상」, 『시학과 언어학』31, 2015, pp. 181.

김유정의 문학에서의 이러한 골계미는 우리 문학의 전통적 맥락에서 볼 때 중세와 근세로 이어지는 평민문학의 미적 특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삶의 실질적 문제를 객관화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문학의 한 위치를 차지한다.⁸⁾

그러나 이 작품도 김유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처럼 바보들의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다루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계층의 어긋남을 객관적으로 문제 삼은 웃음의 문학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참고문헌》

조수진, 「한국어교육에서 ‘해학’의 정서 표현 교육 방안」, 『한국문예비평연구』56, 2017, pp. 403-429.

김영화, 「김유정연구」, 『고려대학교어문논집』16, 1975, pp. 119-136.

권미란, 「김유정 소설의 극적 요소와 교감 문화」, 『대학작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9, 2021, pp. 307-316.

이현주, 「김유정 농촌소설에 나타난 "향토" 표상」, 『시학과 언어학』31, 2015, pp. 173-206.

8) 권미란, 「김유정 소설의 극적 요소와 교감 문화」, 『대학작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9, 2021, pp. 310-311.

Ⅲ-추가 자료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성립과 수용 양상, 그리고 그 의미*

— 예종의 <도이장가>·<도이장시>와 정조의 치제시를 중심으로 —

김명준**

【목 차】

1. 서론
 2. 신숭겸의 역사적 행적
 3.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화
 4. 신숭겸 초상의 수용 양상
 5. 문학적 초상의 결과와 한계
 6.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나말여초 인물인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형성과 수용 양상을 통해 이를 성찰하는데 있다. 신숭겸은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와 교유가 있었으며, 원래 주군이었던 궁예를 제거하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리고 왕건이 후백제 견훤에 의해 죽을 위기를 맞게 되자 신숭겸은 그를 대신하여 죽게 됨으로써 신숭겸은 왕건으로부터 절개 있는 충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다만 신숭겸의 생애를 고려했을 때 그는 쿠데타의 선봉자, 패전하여 전사한 일개의 무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숭겸의 대사 사건은 극적 서사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822).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려 중기 대내외적으로 국정 난맥에 시달리던 예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의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데 그 가운데 신숭겸이 채택되었다. 예종은 <도이장시(悼二將詩)>와 <도이장가(悼二將歌)>를 통해 신숭겸을 충성스러운 인물로 부각하여 개경의 관료들에게 충성을 권장하고 왕권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도이장시>와 <도이장가>는 개경의 신료들을 의식하여, 신숭겸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자, 군왕에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자’로 묘사한 한 정치 가요라 할 수 있다.

고려 예종 대 가공된 신숭겸의 초상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면 신숭겸에 대한 숭배는 사당과 서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조는 그에 대한 치제시(致祭詩)를 지었는데, 이는 정조가 정국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정치 문학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 위 둘이 다른 점은 고려 예종이 신숭겸을 ‘서경’에 두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초상을 그렸다면, 정조는 신숭겸을 동아시아의 보편적 충렬지사로 승격시켜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역사적 평가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다기한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형상화된 인물상은 다양한 평가가 차단된 채 전승되기 때문에,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학 행위는 문학의 존재 가치를 흔들 수 있다. 게다가 형상화 된 인물의 행위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강요된 희생이라면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종과 정조는 신숭겸에 대한 문학 행위는 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일면만을 강조하고 ‘절개’, ‘충의’의 옷을 입혀, 군주를 위해 죽은 것을 찬양하였으므로 그들의 작품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신숭겸, 김락, 도이장시, 치제시, 도이장가, 왕건, 고려 예종, 조선 정조

1. 서론

이 논문은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가 수립한 신숭겸(申崇謙, ?~927)의 문학적 초상에 대한 성립과 전승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피고

이를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신승겸은 무장(武將)으로서 왕건(王建, 877~943)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구 공산 전투에서는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¹⁾ 또한 그의 가계와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에 의하면 그의 초명은 능산(能山)이며 선조는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었으나, 훗날 그는 광해주(光海州, 지금의 춘천)에 살다가 그곳에 묻힌 인물로 전한다.²⁾ 그리고 그는 평산(平山) 신 씨 시조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신승겸은 나말여초 왕건의 편에 서서 한반도 일대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연구사에서 신승겸이 부각된 것은 <도이장가(悼二將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도이장가>는 고려 예종(睿宗, 1079~1122)이 1120년(예종 15) 10월 서경 팔관회에 참석하던 중 신승겸과 김락(金樂, ?~927)의 가상희(假像戲)를 보고 지은 작품이다. <도이장가>는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의 『행장』과 『유사』에 향찰로 전하는 까닭에 해독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양주동(1947)에서부터 황선엽(2015)에 이르기까지 <도이장가>에 대한 해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³⁾ <도이장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와⁴⁾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1) 『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 총서; 『고려사』 권92 열전 권제5 제신(諸臣) 신승겸.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http://db.history.go.kr/>)

2) 『평산신씨성보(平山申氏姓譜)』 『태사개국공신장절공행장(太師開國功臣壯節公行狀)』 (이하 『행장』), 『평산신씨고려태사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 (이하 『유사』);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3) 해독에 관련된 자세한 연구사와 연구는 황선엽, 「<悼二將歌>의 해독」, 『구결연구』 35, 구결학회, 2015, 120~143면 참고.

이)⁵⁾ 주류를 이루었다. 이외에 <도이장가>의 문헌에 대한 연구도⁶⁾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도이장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신승검을 문학적으로 처음 조명한 고려 예종의 <도이장가>와 <도이장시>에 대한 연구는 작품에 치중한 나머지 형성 맥락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이를 재조명한 조선 정조의 치제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비록 두 군주 사이의 시간의 거리는 멀지만 공히 신승검에 주목한 까닭이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이장가>는 신승검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정치적 초상 중 하나에 불과하며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추념 사업과 미화하는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신승검의 문학적 초상과 그것에 대해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승검은 생전의 기록보다 사후의 기록들이 비교적 풍성하게 남아 있는 점, 고려와 조선의 군주들이 간헐적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점, 많은 지역에서 신승검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점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에 이러한 의문들이 이 논문을 이끌게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신승검에 대한 문학적 초상의 형성과 수용 양상과 그 의미들에 대해 살피기로 하겠다. 논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에 의해 수립된 신승검의 문학적 초상화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金基卓, 「悼二將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9집, 한민족어문학회, 1982, 9면; 박인희, 「<悼二將歌>의 창작 배경 연구」,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317면.

5) 박진태, 「팔관회·가상회·도이장가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151면.

6) 金東旭, 「悼二將短歌에 대하여」, 『韓國歌謠의 研究·續』, 二友出版社, 1980; 황선엽, 앞의 논문.

2. 신승겸의 역사적 행적

<1> 신승겸은 원래 전라도 곡성 사람인데 태조가 성을 주고 평산을 본관으로 하게 하였다. 속설에 신승겸이 일찍이 태조를 따라 사냥하다가 삼탄(三灘)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그때 기러기 세 마리가 공중에 떠 돌았는데 태조가, “누가 쏘겠는가?” 하니, 신승겸이, “신이 쏘겠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활과 화살, 안장 갖춘 말을 주었는데, 신승겸이 말하기를, “몇 번째 기러기를 쏘리까?” 하니, 태조가 웃으며,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아라.” 하였다. 신승겸이 명령에 따라 쏘았는데 과연 그대로 맞히니 태조가 장하게 여겨 감탄하면서 명하여 평주로 본관을 삼게 하고, 기러기를 쏜 근처의 밭 3백결도 함께 하사하여, 대대로 그 조세를 받아먹게 하였으며 인하여 그 땅을 궁위(弓位)라 이름하였다.⁷⁾

신승겸의 조상과 가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고, 단지 선조가 전남 곡성에 살았다는 것과 신승겸대에 춘천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후삼국 시기에 여러 곳을 유랑하다가 춘천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황해도 평산에 어떠한 연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건과의 일화에서 보듯 평산 신씨의 시조가 된 점이 흥미롭다. 결국 신승겸 이전 대까지는 한미한 가문이었으나 그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승겸은 나말여초 왕건과의 교유 속에서 춘천과 평산의 인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6월 을묘에 이르러 기장(騎將) 홍유(洪儒),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卜智謙) 등이 비밀리에 모의하여 밤에 태조의 집으로 찾아가 왕으로 추대할 뜻을 함께 말하였다. 태조가 굳이 거절하며 허락하지 않았으나 부인 유씨(柳氏)가 손

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평산도호부. 이 책의 번역과 인용은 한국고전번역DB(<http://db.itkc.or.kr>) 참고. 『홍재전서』와 『무명자집』도 같은 곳에서 참고하였다.

수 갑옷을 들고 와 태조에게 입히니 여러 장수가 웅위하며 나왔다. 사람을 시켜 말을 달리면서 외치게 하기를, “왕공(王公)께서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드셨다!”라고 하니, 이에 다투어 달려와 붙는 자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고, 먼저 문문에 이르러 복치고 소리 지르며 기다리는 자도 10,000여 인이었다.⁸⁾

<3> “짐은 미천한 출신으로 재주와 식견이 용렬하고 낮은데도 진실로 여러 사람의 바람에 힘입어 왕위에 올랐으니, 폭군을 폐위시킬 때 충신으로서의 절개를 다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상을 주어 그 공로를 기려야 한다.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을 1등으로 삼고 금, 은의 그릇, 수놓은 비단옷, 화려한 이부자리, 능라와 포백을 차등 있게 내린다.”⁹⁾

<2>와 <3>은 신승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기록들이다. <2>는 918년 6월 14일에 신승겸이 홍유등과 함께 왕건을 왕으로 옹립한 것을, <3>은 그들의 거사가 성사되어 태조 왕건으로부터 1등 공신과 부상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을 도모한 지 이틀 만에 왕위에 오른 왕건은 조서에서 궁예의 실정을 빌미삼아 왕위에 올랐다고 했지만¹⁰⁾ 실상은 왕건과 측근 세력이 모의한 쿠데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궁예를 제거한 것은 왕건을 비롯한 신승겸 집단이 결행한 반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왕건과 신승겸은 목숨을 건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이 둘은 정치적 동반자로서 결속을 다지게 된다. 왕건은 쿠데타를 주동한 세력들에게 1등 공신이라는 실질적 보상과 함께 ‘절개

8) 『高麗史』 卷一 世家 卷第一 元年(918) 6월 14日. “至六月 乙卯 騎將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等密謀, 夜詣太祖第, 共言推戴之意. 太祖固拒不許, 夫人柳氏手提甲 領被太祖, 諸將扶擁而出. 令人馳且呼曰, “王公已舉義旗矣!” 於是, 奔走來赴者, 不可勝記, 先至宮門, 鼓譟以待者, 亦萬餘人.”

9)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 元年(918) 8월 11日. “朕出自側微, 才識庸下, 誠資群望, 克踐洪基, 當其廢暴主之時, 竭忠臣之節者, 宜行賞賚, 以獎勳勞. 其以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爲第一等, 給金銀器 錦繡 綺被褥 綾羅 布帛有差.”

10) 『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 원년(918) 6월 16일.

있는 충신'이라는 명예까지 안겨 주었다. 궁예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반역을 도모한 불충한 무리들이나, 성공한 집단 스스로는 '의로운 주군 - 절개 있는 충신'이라는 상호 치사를 통해 반역의 명분을 얻고 불충을 교묘하게 가린 것이다.

또한 태조는 자신이 궁예의 신하였던 만큼 자신의 신하가 언제나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편에 섰던 인물들과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략결혼을 통해 인척 관계를 형성하든지 공신들에게 식읍을 제공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담보한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읽은 <1>은 후자의 방법으로 신승겸에게 행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에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公山)의 동수(桐蔭)에서 견훤(甄萱)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승겸과 김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¹¹⁾

<5>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과 더불어 공산의 동수에서 싸워서 불리하게 되니 견훤의 군사가 태조를 포위하여 매우 위급하였다. 신승겸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전사하니 태조가 슬퍼하였다. 시호는 장절이다. 뒤에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¹²⁾

<4>와 <5>는 신승겸과 왕건의 더욱 긴밀해진 관계를 보여주는

11) 『高麗史』卷1 世家 卷第1 太祖 10年 9月. “王聞之大怒, 遣使弔祭, 親帥精騎五千, 邀萱於公山桐蔭, 大戰不利. 萱兵圍王甚急, 大將申崇謙 金樂力戰死之, 諸軍破北, 王僅以身免. 萱乘勝, 取大木郡, 燒盡田野積聚.”

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강원도 춘천도호부.

자료이다. 내용의 핵심은 왕건이 신라를 돕기 위해 출정한 공산 전투에서, 견훤의 군대에 밀려 죽을 위기를 맞게 되자 신숭겸이 대신 죽음으로써 왕건을 구했다는 것이다. 『행장』과 『유사』에서는 신숭겸이 왕건과 용모가 비슷하여 자신이 왕건인 것처럼 위장하고 왕건을 피신하게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면한 왕건은 목이 잘린 신숭겸의 시신에 두상을 조각하여 춘천에서 장례를 지내게 했다고 한다.¹³⁾

왕건의 일생에서 고비가 두 번 있었다면 10여 년 전 쿠데타 모의와 공산 전투일 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회와 위기에서 그를 돕고 구한 이가 신숭겸이었다. 쿠데타가 대내적 위상 제고가 목적이었다면, 공산 전투는 삼국 통일을 위한 대외적 패권 쟁취라 할 수 있다. 이 모두 왕건에게 명운이 달린 것으로 전자의 승리 뒤에 신숭겸의 결행이, 목숨을 구한 후자는 신숭겸의 희생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왕건은 신숭겸이 죽은 뒤 그를 태묘에 배향하게 하였다.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에게 패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원정을 감행한 왕건과 그에 동조한 신숭겸은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신숭겸의 미담으로 인해 왕건은 패전의 책임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됨에 따라 신숭겸이 죽었던 장소는, 그를 기리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은 견훤에게는 왕건의 군대를 격멸한 승전지이지만, 왕건의 입장에서는 대사(代死)의 거룩한 성지가 된 셈이다.

이렇듯 신숭겸은 원래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여 왕건과 함께 권력 찬탈을 도모했고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패한 장수였다. 하지만 역사의 최종 승자인 왕건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까닭에, 살아서는 1등 공신의 영예를 누렸으며 죽어서는 충절의 인물로 미화되기에 이르렀

13) 『春川郷土資料集』, 春川文化院, 1992, 86~87면.

다. 더욱이 그가 의도치 않게 누빈 한반도 지역들은 그를 추모하는 전당으로 포장될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던 것이다.

3. 신승겸의 문학적 초상화

고려 예종은 왕위에 오른 뒤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부왕 숙종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에 따른 정통성 시비, 무리한 천수사 공사 그리고 여진 정벌 및 동북 9성 반환 등으로 인해 개경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대외적으로는 거란(요)과 여진(금)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이에 예종은 서경과 남경 행행을 통해 개경 세력과 거리를 두려 했고, 송과의 교류를 통해 거란과 여진에 맞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¹⁴⁾ 특히 서경은 태조의 관향이자 문벌 귀족의 대척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종의 서경 방문은 왕권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종은 송의 대성악을 수입한 다음 태묘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서경에서 채취한 옥으로써 새로운 제례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예종에게 서경은 정국 돌파를 위해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다.

<6> 태조는 팔관회를 상설하여 군신들과 즐겼다. 이 자리에 전사한 공신이 홀로 반열에 있지 않으므로 유사에게 명하여 결초하여 신승겸과 김락의 상을 만들어 조복을 갖추게 하여 반열에 앉게 하였다. 임금이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술과 밥을 내리니 술잔이 마르고 가상이 일어나 춤을 추니 생시와 같았다. 이로 부터 악정에 배치하여 상례로 삼았다.¹⁵⁾

14) 김명준, 「고려 예종 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의미」,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7~13면.

<7> 팔관회를 열고 왕이 잡회를 관람하였다. 국초의 공신 김락과 신숭겸의 모습을 본 뜬 우상이 있었는데, 왕이 감탄하여 시를 지었다.¹⁶⁾

<8> 이에 어제 4운 1절과 단가 2장을 지어 내렸다.¹⁷⁾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에 참석한 때는 집권 15년 때의 일이다. 대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종은 팔관회에서 신숭겸과 김락을 만나게 된다. <6>에서 보듯 팔관회에 신숭겸과 김락의 추모 공연이 상례가 된 것은 국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에서 처음 이 공연을 관람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에서 이 공연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개경의 팔관회가 아닌 서경의 팔관회에서 <도이장시>와 <도이장가>을 지은 것이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見二功臣像	두 공신의 상을 바라보니
洟濫有所思	생각함에 눈물이 흐르네.
公山踪寂寞	공산의 자취는 쓸쓸히 남고
平壤事留遺	평양의 일은 머물러 있네.
忠義明千古	충의는 천고에 밝았으니
死生惟一時	삶과 죽음은 오로지 한 때 일이라.
爲君躋白刃	주군을 위해 칼날을 맞았으니
從此保王基	이로써 왕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네.

15) 『행장』. “太祖常設八關會，與群臣交歡，慨念戰死功臣獨不在列，命有司結草造公與金樂像，服以朝服，隨坐班列，上樂與共之，命賜酒食，酒輒焦乾，假像起舞，猶生之時。自此排置樂庭，以爲常式也。”

16) 『高麗史』卷14 世家14 睿宗 15年 10月 14日. “設八關會，王觀雜戲。有國初功臣金樂申崇謙偶像，王感歎賦詩。”

17) 『유사』. “仍賜御製四韻一絕 短歌二章.”

<도이장시>이다. 화자는 신승겸과 김락의 우상을 보면서 감회에 젖고 있다. 화자는 과거의 대구 공산과 현재의 서경을 겹쳐 놓고 있다.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이들의 넋이 공산에 남아 있고 그들을 기리는 마음이 서경에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신승겸과 김락의 행위는 충성과 절의로 영원히 표상될지니 한 때의 죽음보다 값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희생이 국가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예종은 신승겸과 김락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의 충의로 포장하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두 장수를 죽게 한 것은 왕건의 전략 미비와 실책 때문이고 신승겸이 죽은 것은 왕건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 방법의 하나였다. 따라서 두 장수의 죽음은 국가적 차원의 충성과 절의로 이해되기보다는 왕건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아니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두 장수에게 강요한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종은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왕조의 번영을 위한 신하의 의로운 죽음으로 미화하였다. 왕건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듯이 예종의 부왕 숙종도 조카로부터 왕위를 강탈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왕건에게는 신승겸과 김락이 있었으나 숙종과 예종 자신에게는 그러한 신하가 없었기에 예종은 신승겸과 김락과 같은 신료가 절실했기 때문에 서경에서 두 장수를 불러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主乙完乎白乎心聞	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際天乙及昆	하늘 끝까지 미치니
魂是去賜矣	넋이 가셨으되
中三鳥賜教	몸 세우고 하신 말씀
職麻又欲望彌阿里刺及彼	職分 맡으려 활 잡는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可二功臣良	좋다 두 功臣이여
久乃直隱跡烏隱	오래 오래 곧은 자취는

現乎賜丁

나타내신저.¹⁸⁾

<도이장가>로, 그 내용은 “임을 온전하게 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님은 가졌으나 (가상회를 통해) 몸을 세워 한 말씀이 ‘직분을 맡은 이는 늘 새로워지기를’이네, 두 공신은 오래되었으나 곧은 자취는 나타났구나.”로 정리할 수 있다. ‘임을 온전하게 한 마음’은 신숭겸과 김락이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일을 가리킨다. 그러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고 산 자가 그를 기리기 위해 팔관회의 가상회를 통해 부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이 후세에 전할 말이 있다면, ‘직분을 가진 이는 늘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이장가>는 큰 틀에서 <도이장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점은 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이장시>에서 모범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고 <도이장가>에서는 그 인물이 현재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종이 신료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예종은 신숭겸과 김락을 문학적으로 포장하여 그가 바라는 신료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예종은 <도이장시>에서 신숭겸을 둘러싼 반역과 패장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충의와 왕조 기틀의 조력자의 초상을 조각한 다음, <도이장가>에서는 신숭겸의 초상을 활용하여 개경 세력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4. 신숭겸 초상의 수용 양상

18)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216면.

<9> 의정부가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려 왕조의 <중략> 장절공 신숭겸 등 4인은 모두 고려 태조를 추대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중략>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각 왕대에 배향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컨대 왕 씨의 제사를 받들 때 함께 제사하도록 하소서.”¹⁹⁾

왕조가 바뀐 다음에도 신숭겸에 대한 기념 사업은 계속되었다. 충절의 이념은 어느 시대에나 위정자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단종 즉위년에 전조의 제례를 정비하면서 고려 태묘에 배향된 인물들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렸다. 그 과정에서 신숭겸이 채택되었다. 조선의 집권층이 신숭겸을 선별한 이유는 왕건을 추대하여 삼한을 통일한 점,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점 등이었다. 승자를 긍정하는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다. 신숭겸이 왕건과 함께 쿠데타를 행한 사실보다는, 역사의 승자인 왕건의 편에 섰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다는 것은 신숭겸의 충의가 백성의 윤리 교육에 이바지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예종 대 가공된 신숭겸의 이미지는 조선시대에도 비판 없이 전승되었던 것이다.

<10> 상이 이르기를, “성터가 아직 남아 있단 말인가?” 하니, 아뢰기를, “있습니다. 성 안에 전조(前朝) 장절공 신숭겸의 철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철상이 지금도 남아 있더라 말인가?” 하니, 아뢰기를, “있습니다. 지금도 고을 사람들 중에 사사로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끔 음사(淫祀)를 하므로 신이 그의 자손을 불러 경계하기를 ‘너희 조상의 유상(遺像)이 아직 보존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라.’ 하고, 이내 회문을 돌려 재력을 마련해서 사당을 세웠습니다.”²⁰⁾

19) 『단종실록』 즉위년(1452) 12월 13일.

<11> 고려 태사 장절공 신승겸 등의 서원에 예관을 보내어 편액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²¹⁾

조선후기에 이르면 신승겸에 대한 추모 사업은 사당 건립과 서원 배향 등으로 확대된다. <10>은 신승겸의 관향인 평산에 사당 건립과 관련된 기사이고, <11>은 신승겸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기록이다. 신승겸을 모신 사당과 그를 배향한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신승겸과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의 후손 가운데 현달한 이가 터를 잡은 곳이라면 여지없이 사당 혹은 서원이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12> 고려 장절공 신승겸, 충절공 유검필, 무공공 복지겸의 사당에 ‘삼태사사’라고 사액하고, 이어 치제하도록 명하였다. <중략> 사호를 지어 올리고 길일을 잡아 이 호를 걸도록 하라. 호를 거는 날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일찍이 무장(武將)을 지낸 바 있는 장절공의 자손 가운데에서 보내라. 제문은 친히 지을 것이다.²²⁾

緬惟麗肇	아득히 고려가 시작할 때를 생각하니
厥有三傑	당시에 세 호걸이 있었네.
翼翼元勳	성대한 원훈을
孰與壯節	누가 장절공과 비길 것인가.
公山之野	공산의 들판에서
桐蔭漂血	동수에 피가 범람했으니,
京索榮陽	초한(楚漢)의 격전지인 경색 형양에서
紀焚之烈	기신(紀信)이 불타 죽은 충렬이었네.

20) 『선조실록』 29년(1596) 12월 19일.

21) 『현종실록』 13년(1672) 11월 2일.

22) 『정조실록』 20년(1796) 8월 4일.

한다.²⁶⁾

신승겸은 드디어 신이 되었다. 신승겸이 실제 곡성에 살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의 조상이 곡성에 살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승겸은 성황신이 된 것이다. 이미 신승겸이 생전에 연관이 있는 춘천, 공산, 평산은 물론 연고가 없는 곳에서도 서원과 사당이 세워졌으니 곡성이라고 제외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신승겸은 고려와 조선의 군주들의 관심 속에 서경, 개경, 한양에 깃들었던 것이다. 이렇듯 신승겸은 천 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 일대를 종횡하며 가문, 지역, 국가의 숭배자가 되었다. 이러한 우상화는 국가 권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요컨대 정조는 전조부터 이어져온 신승겸의 초상에 한나라의 장수를 끌어와 유가적 충렬자로 각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정국 운영에 참고하고 대민 윤리 교육의 자료로 삼았다. 여러 지역의 사당과 서원에서 신승겸을 모시고 배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5. 문학적 초상의 결과와 한계

우리는 앞서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의 시가에서 형성된 신승겸의 문학적 초상들이 수용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았다.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공작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중세시대 최고 권력자의 문학 행위도 이러한 공작과 궤를 같이하곤 한다. 더욱이 군왕의 문학 행위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곡성현.

문에 강력한 전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왕은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을 문학 작품에 투영하여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국가와 군주 사이의 개념이 모호하던 시절 왕이 된 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니 예종과 정조도 그 대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의 인물을 모범적으로 가공하고 선양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고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신숭겸이었다.

고려 예종은 신숭겸이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점과 전쟁에 패해 전사한 장수라는 사실을 숨긴 채 문학 작품을 통해 충의의 인물로 조작하여 전파하였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권력자의 목숨을 대신하거나 혹은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래에 놓인 자의 죽음을 정당화(또는 권장)하는 것은 사회악이다. 비록 선공후사의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객관화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용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은 그러한 과정 없이 본인의 정국 돌파를 위해 과거 사실을 문학적 초상화 작업을 통해 조작하고 전파한 것이다. 이제 예종으로 인해 신숭겸은 서경에 새로운 터전을 삼게 되었고 개경의 어느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해는 변하기 마련이다. 인물에 대한 초상도 마찬가지이다. 신숭겸은 원래의 주군인 궁예를 축출했기 때문에 배신과 불충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나 왕건과 예종을 거치면서 그는 ‘절개 있는 충신’, ‘충의의 모범’ 등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어 받아 조선의 정조는 신숭겸의 행위를 보편적 가치로 승화하고 유가적 합리성을 보장 받기 위해 ‘기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신숭겸을 신격화하여 조선의 민을 보살피 달라

고 주문했다. 마치 군주의 역할까지 위임하듯이. 또한 조선후기에 신숭겸에 대한 우상화 사업은 사당과 서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신숭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사실에 가까운 것들은 잊혀지고, 거짓이 사실로 굳어져 버린 셈이다.

예종과 정조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위정자가 역사적 인물을 위인으로 내세워 교육적 효과를 도모한 점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한 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우상화 한 점과 그 인물의 행위를 선양하고 권장한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숭겸의 쿠데타 참여와 패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인간적인 의리, 합리적 무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려와 조선의 집권자들에 의해 충절의 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 고려와 조선의 민들은 신숭겸을 충절의 사표로 알게 되었으니 집권자들로서는 교육적 실효를 얻었다고 흡족히 여길 수도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숭겸의 대사(代死)이다. 신숭겸의 대사는 군왕과 신료 사이의 관계로, 또는 전쟁 주동자와 종사자 간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전자로 이해할 경우 신숭겸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겠지만, 후자로 볼 경우 패전 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종사자의 희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라 하더라도 왕권이 국가인가 하는 문제와 신숭겸의 희생을 충절로 볼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신숭겸의 대사는 절대적 긍정 가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국가를 위한 충성의 죽음으로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종과 정조는 신숭겸과 같은 인물을 양망하였다. 군왕의 오판을 간언하는 신료보다는 실정(失政)을 대신

책임질 만한 어리석은 신료를 원한 것이다. 곧 문학 행위를 통해 무모한 행동을 충절과 의리로 포장하여 제2, 3의 신숭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 것이다.

군왕들의 관심 속의 신숭겸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먼저 신숭겸과 관련이 있는 곳부터 공략하였다. 평산은 신숭겸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수조지였기 때문에 평산인들이 신숭겸과 그 후손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신숭겸의 후손을 중심으로 사당을 세웠을 것이나 통치자의 권장과 시간의 흐름 속에 평산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갔다. 이에 평산의 후손들은 신숭겸을 숭배했고 지역민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후 신숭겸과 관련이 있는 전남 곡성, 강원 춘천, 대구 공산에서부터 그의 후손과 관계가 있는 곳, 증명할 수 없으나 그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곳 곳마다 그를 모시는 사당과 사원이 생겨났다. 이런 결과 신숭겸은 전국에 충절 홍보대사가 되었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게 위해 ‘충’은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다. 중세는 물론 근대 국가 이후에도 충은 긍정의 가치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충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충의 결행은 개인의 능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은 공동체와 판단 주체가 상호 긍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동체와 개인은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의 안전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 충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한 자들끼리의 관계를 ‘충의’로 정의하는 것 또한 옳당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신숭겸의 ‘충’은 사적인 의리를 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숭겸의 대사를 충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조선의 민들은 진지한 판단을 중지한 채 지주, 수령, 군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충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초상은 역사적인 평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비판, 동정, 위로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문학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초상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산되고 사유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예종과 정조가 수행한 신숭겸에 대한 문학적 초상화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다양하게 평가될 수 인물을 군왕의 권위로서 불가역적으로 판정하여 문학의 존재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6. 결론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나말여초 역사적 인물인 신숭겸에 대해 고려 예종과 조선 정조의 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적 초상과 후대 수용 양상을 통해 그것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적 활용의 관점에서 <도이장가>와 그 이후 작품을 거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신숭겸의 문학적 초상화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신숭겸의 역사적 행보를 살펴보면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 두사람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래 주군인 궁예를 제거하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자 그는 왕건과 함께 신라를 구하자고 대구 공산에서 전투를 벌이다 왕건이 죽게 되자 대신 죽었다. 왕건을 추대한 공로로 1등 공신에 오르고, 평산을 식읍으로 받았으나 공산에서 사망하였던 것이다. 그가 죽은 뒤 왕건으로부터 절개 있는 충신이

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이면을 보면 그는 쿠데타의 선봉자요, 패전하여 전사한 일개 무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국정 난맥에 시달리던 예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의로운 무인을 찾았다. 왕건으로부터 물려받은 충성의 장군, 신숭겸을 문학적으로 가공하여 대내 갈등 관계에 있던 개경 세력에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도이장시>와 <도이장가>이다. 이 노래들은 신숭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철저히 걷어내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자, 군왕에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자로 포장한 다음 현재의 신료들에게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신숭겸은 서경에서 왕건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고려 예종 대 가공된 신숭겸의 이미지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신숭겸에 대한 숭배는 사당과 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조는 그에 대한 치제시를 짓기도 하였다. 정조가 신숭겸에 관심을 갖고 문학적 초상화를 그린 것은 고려 예종이 그랬던 것처럼 정국 운영을 위한 방도로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조의 치제시는 예종과 다른 차원에서 신숭겸을 포장하고 있다. 예종이 신숭겸을 ‘서경’에 두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초상을 그렸다면 정조는 신숭겸을 동아시아의 보편적 충렬지사로 승격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의 우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대체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역사적 평가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간다.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다듬는 가운데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형상화된 인물상은 다양한 평가가 차단된 채 전승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문학의 존재 가치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게다가 형상화 된 인물의 행위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강요된 희생일 때 그 위험

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종과 정조는 문학 작품을 통해 신승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거한 채 ‘절개’ ‘충의’의 옷을 입혀 군주를 위한 죽음을 찬양하였으므로 그들의 작품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현재 우리는 지역 인문학의 흥성과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역사적 인물들을 발굴하고 선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자체, 학교 그리고 가문이 힘을 모아 발굴한 인물을 조망하고 선양하는 것에 모두 뿌듯하게 여기곤 한다. 다만 그러한 인물이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후대의 욕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만약 신승겸이 다시 살아 와서 현재의 신승겸을 본다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자료>

- 『고려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 『무명자집』→ 한국고전번역DB(<http://db.itkc.or.kr>).
-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번역DB(<http://db.itkc.or.kr>).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春川郷土資料集』(春川文化院, 1992), 86-87면.
- 『태사개국공신장절공행장(太師開國功臣壯節公行狀)』.
- 『평산신씨고려태사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
- 『홍재전서』→ 한국고전번역DB(<http://db.itkc.or.kr>).

<논저>

- 金基卓, “悼二將歌에 對하여”. 『한민족어문학』 제9집. 한민족어문학회, 1982. 9면.

- 金東旭. “悼二將短歌에 대하여”. 『韓國歌謠의 研究·續』. 二友出版社, 1980.
- 김명준. “고려 예종 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의미”. 『어문논집』 제68집. 민족어문학회, 2013. 7~13면.
- 김명준. “관왕요 악장의 형성과 개찬의 의미”. 『어문논집』 제77집. 민족어문학회, 2016. 20~22면.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216면.
- 박인희. “<悼二將歌>의 창작 배경 연구”. 『국어국문학』 제160집. 국어국문학회, 2012. 317면.
- 박진태. “팔관화·가상화·도이장가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 제128집. 국어국문학회, 2001. 151면.
-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 황선엽. “<悼二將歌>의 해독”. 『구결연구』 제35집. 구결학회, 2015. 120~143면.

논문투고일: 2018.7.12 심사완료일: 2018.8.16 게재확정일: 2018.8.21
--

■ 語文論文

飲食名에 붙는 接頭辭 ‘막-’에 대하여*

李秉騏

(翰林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要約 및 抄錄

이 論文은 ‘막걸리, 막국수, 막간장, 막장, 막과자, 막소주’ 등의 飲食名에 붙는 接頭辭 ‘막-’의 의미와 그 發達 과정에 대하여 究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접두사 ‘막-’이 副詞 ‘마구’에서 발달하였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성하고 多層的인 과정과 여러 어휘의 연관 속에서 접두사 ‘막-’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고찰한다. 2장에서는 ‘마구’에서 접두사 ‘막-’이 발달하였다는 주장과 辭典 記述上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막걸리, 막소주, 막담배, 막국수, 막과자, 막장’ 등이 歷代 文獻 및 新聞媒體에 출현하는 樣相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추적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접두사 ‘막-’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의 의미의 ‘막’을 포함한 여러 동음어들이 접두사 ‘막-’의 의미 형성에 관여하였으리라는 것과 ‘마구’와의 연관은 현대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임을 설명한다. 또한 ‘막걸리’의 內的 構造를 분석함에 있어 접두사의 意味的 顯著性を 중시하여 ‘*걸리’의 문법 범주와 상관없이 言衆의 의식에는 ‘막’이 독립적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을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이후 과제를 제시한다.

※ 核心語: 막걸리, 막국수, 막간장, 막장, 막과자, 막소주, 접두사, 문법화

I. 서론

2016년 5월에 ‘막국수, 막걸리, 막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춘천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HRF-201607-001), 2016년 6월 서울대 국어연구회, 11월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집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MBC 피디에게 이들 음식명에 붙은 ‘막’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問議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접두사 ‘막-’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고 辭典의 뜻풀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 이들 어휘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1) 가. 막-07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막고무신/막과자/막국수/막담배/막소주.

「2」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막노동/막말/막별이/막일.

「3」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막가다/막거르다/막벌다/막보다/막살다.

「참고 어휘」 막02.

나. 막걸리: 우리나라 고유한 술의 하나. 맑은술을 떠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짠 술로 빛깔이 흐리고 맛이 텁텁하다. ≡ 탁료 · 탁주(濁酒). 【←막+거르+이】

다. 막-국수: 길쭉질만 벗겨 낸 거친 메밀가루로 굵게 뽑아 만든 거무스름한 빛깔의 국수.

라. 막-장04(醬): 허드레로 먹기 위하여 간단하게 담근 된장. 메주에 볶은 콩가루, 소금, 고춧가루 따위를 넣고 띄워 만든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접두사 ‘막-07’에 대한 記述 (1 가)를 보면 명사는 물론 동사와도 결합한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부사 ‘마구’를 연상하게 하는 否定的인 뜻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뜻과 그 용례를 보면 ‘막국수’의 ‘막-’을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으로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뜻과 용례 ‘막거르다’ 그리고 (1 나) ‘막걸리’의 語源情報를 보면 ‘막걸리’의 ‘막-’을

1) 실제 다큐멘터리는 ‘강원도 막’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2016년 9월 25일 방영되었고 제작 과정에서 자문한 내용이 이 논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막걸리, 막국수, 막장’에 대하여 黃炳勳 피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도 있음을 밝혀 둔다.

“주저 없이, 함부로”라는 뜻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같은 사전의 막걸리와 막국수의 뜻풀이만 보더라도 이러한 ‘막-’의 의미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거친’의 경우 ‘거칠다’의 14가지 의미 중 “『8』 가루나 알갱이 따위가 굵다.”, “『9』 음식이 맛과 영양이 적고 부드럽지 아니하여 험하다.” 두 의미가 어울릴 수 있는데 막국수가 ‘맛과 영양이 적은’ 음식이 아니므로 『8』이 후보가 될 것이다. ‘막국수’는 주재료가 겉껍질까지 같이 뺀 입자가 굵은 가루이므로 ‘거친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중심 의미인 메밀가루가 아닌 수식어 ‘거친’이 ‘막국수’라는 조어의 중심 의미로 참여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거친’과 ‘품질이 낮은’을 같은 뜻풀이 안에 두었다는 것은 이 둘을 상관어로 보았다는 것인데 최근 건강 음식으로 脚光을 받고 있는 ‘막국수’를 ‘품질이 낮은 국수’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1 라) ‘막장04’의 분석 정보를 보면 역시 접두사 ‘막-’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인데 이의 뜻풀이는 앞과 뒤가 相衡된다. 앞에서는 ‘허드레로 먹기 위하여 간단하게 담근 된장’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뒤에서는 ‘메주에 볶은 콩가루, 소금, 고춧가루 따위를 넣고 띄워 만든다.’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반적인 된장(메주로 간장을 담근 뒤에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보다 더 多樣한 材料와 過程을 통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렇게 접두사 ‘막-’ 관련 어휘들의 뜻풀이가 상호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는 접두사 ‘막-’을 ‘참고 어휘’로 제시한 부사 ‘막02(마구)’에서 온 것으로 보고 부사 ‘막02’의 의미를 연결시키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論文에서는 이러한 飲食名에 붙는 ‘막-’을 중심으로 接頭辭 ‘막-’의 意味와 出現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접두사 ‘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초기 사전의 登載 樣相을 통해 알아본다. 둘째는 막걸리, 막국수, 막간장, 막장, 막과자, 막소주 등 ‘막-’이 결합되어 있는 음식명의 淵源에 대하여 歷代 文獻과 新聞 媒體에 출현하는 양상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造語法의 觀點에서 접두사 ‘막-’의 의미와 ‘막걸리’의 內的 構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II. 접두사 '막-'에 대한 認識

‘막-07’²⁾의 文法的 位相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言衆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당대의 문헌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당대 언중의 어휘부를 반영하는 사전류를 먼저 살펴보았다. 먼저 개화기 이중어사전을 비롯하여 최초의 종합 국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큰사전』까지 ‘막-07’ 관련 어휘들의 등재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 (표준국어 대사전)	한불 사전 (1880)	한영 사전 (1890)	국한 회어) (1895)	한영 사전 (1897)	조선어 사전 (1920)	조선어 사전 (1938)	큰 사전 (1957) ⁴⁾
막01	0 ⁵⁾	0	-	-	0	0	막1
막02	-	-	-	-	0	0	막2
막-07	-	-	-	-	-	-	-
막-거르다	-	-	-	-	-	-	-
막걸리	막걸니	막걸니	막걸이 濁酒	막걸니	막걸니	0	0
막-누룩	-	-	-	-	-	-	0 ⁶⁾
막-되다	0	-	-	0	0	0	0
막된-놈	-	-	-	-	0	0	0
막-말 (하다)	-	-	막말하다 面責 ⁷⁾	-	0	0	0
막-매기	-	-	-	-	-	-	0
막배기	-	-	-	-	-	0	0
막-백토	-	-	-	-	-	-	0
막-벌다	-	-	-	0	0	0	0
막벌-이	막버어리	막버어리	-	0	0	0	0
막벌이-꾼	-	-	막버리꾼	막벌이꾼	막벌이스꾼	막벌잇꾼	막벌잇꾼

2) ‘막’은 여러 동음이의어를 가지므로(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 기준으로 ‘막’이란 어휘는 부사 3, 접두사 2, 접미사 1, 명사 2, 수사 1개가 있다.) 이를 구별하여 지시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어깨번호를 이용하기로 한다.

3) 『國漢會語』는 1895년에 李準榮, 鄭玟, 李珉榮, 李明善, 姜璣熙이 國語를 표제어로 하여 편찬한 일종의 대역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賣貨軍				
막-불경이	-	-	-	0	막불영이	0	0
막-소주							
막-일	-	-	-	-	-	-	0
막-잡이	-	-	-	-	0	막-잡이 ⁸⁾	0
막-장 ⁰⁴	-	-	-	-	-	-	-
막-초	-	-	막초 末草 ⁹⁾	0	0	0	0
막-치 ⁰¹	-	-	-	0	0	0	0
막토=막흙	-	-	-	-	-	-	0
막-펼	막펼	-	-	0	0	0	0
마구 ⁰¹	마고	마고	-	마고	막우	0	0
마구-발방 10)	0	-	-	마구발방 으로	막우발방	0	0
마구잡이	-	-	막우잡이 難捧者	-	막우잡이	0	0

〈표 1〉 초기 사전의 ‘막-’ 관련 어휘 등재 양상

- 4) 『큰사전』은 1947년에 『조선말 큰 사전1』이 간행된 후, 1949년에 『조선말 큰 사전2』, 1950년에 『큰 사전3』, 1957년에 『큰 사전 4,5,6』이 간행되었다.
- 5) ‘막’과 함께 ‘막 시작할 썩 方始作之時’도 올라 있다.
- 6) ‘막누룩’에 대하여 ‘=성누룩’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런데 『큰사전』에 ‘성누룩’은 등재 안 되고 ‘섬누룩(밀을 갈거나 또는 찼어서, 크고 둥글납적하게 만든 누룩. 막걸리나 소주밑 하는 데 그냥 깨뜨려 넣음.(막누룩. 섬치))’이 등재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누룩’은 없고 ‘섬누룩’만 나오는 것을 보면 ‘성누룩’은 ‘섬누룩’의 잘못된 듯하다.
- 7) 『국문자집』에는 ‘面責之言’으로 되어 있다.
- 8) 막 쓰는 물건, 마구잡이, 組用品. ‘막잡이’와 ‘마구잡이’의 뜻에는 공통되는 바가 있지만 각 사전의 의미 제시 순서로 봤을 때 ‘막잡이’는 물건, ‘마구잡이’는 행위가 기본적인 의미인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막잡이’ 세 번째 뜻으로 ‘마구잡이’를 들었다.
- 9) 『표준국어대사전』의 ‘막초’ 풀이는 ‘질이 낮은 살담배’이다. 이는 ‘막-07’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국한회어』에서는 ‘막초’에 ‘末草’를 대응하고 있어 ‘막’의 기원에 대하여 “끝, 마지막” 의미의 ‘막’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國漢會語』의 초고 성격인 乾의 『국문자집』 하권에는 ‘막초’에 대하여 ‘南草之末根’으로 대응된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國漢會語』에 국한되며 이후 『한영자전』(1897)에서는 “Inferior tobacco. Opp. 상초(上草)”로 『조선어사전』(1920)에서는 “最下等の刻煙草”로 풀이하고 있다.
- 10) ‘미구발방’의 의미는 “분별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인데 여기서 ‘발방’은 한자어 ‘發放(총 대포 따위를 쏘.<한국한자어사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또 발방^하야 니로되 거정야 드라^라(又發放口車正聽著) <1612연병지남 17b>

<표 1>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2) 가. “(시간적으로) 바로” 의미의 ‘막’이 “마구” 의미의 ‘막’보다 등재 시기나 쓰임에 있어 앞선다.

나. ‘막-’에 대한 문법 범주적 인식은 없었다.

다. ‘막걸리’는 이른 시기부터 등재되었지만 ‘막국수, 막소주, 막장, 막과자, 막간장’은 등재되지 않았다.

라. ‘막-07’의 용례로 올라 있는 ‘막일, 막별이, 막말’이 『조선어사전』(1920)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용례에는 없는 ‘막누룩, 막매기, 막배기, 막백토, 막잡이, 막필, 막치’ 등도 등재되어 있다.

마. ‘마구’가 ‘마구잡이’, ‘마구발방’과 같이 어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 가)는 ‘막’이라는 형태의 부사가 “(시간적으로) 방금”의 뜻이 “마구”의 뜻보다 그 역사나 쓰임에서 앞선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¹¹⁾ 실제 역대 국어사 문헌 자료에서 부사 ‘막’은 “(시간적으로) 방금”의 의미로 일찍부터 사용되었으며 마고, 마구의 준말인 ‘막’은 20세기를 전후한 후대부터 활발하게 쓰인다. 이는 ‘막’이 결합한 복합어들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면 거기에 결합한 ‘막’은 “마구”의 뜻보다는 “(시간적으로) 방금”의 뜻을 가진 ‘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2 나)는 ‘마구(마고)’가 준말 형태인 ‘막’이 아니라 본말 형태 그대로 ‘마구발방’, ‘마구잡이’와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쓰였음을 주목한 것이다.

(2 나)는 접두사 ‘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20년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에서부터는 부사와 접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시했는데도 ‘막’은 “막우”라는 뜻의 부사로만 제시하고 접사로는 등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사 ‘막’의 하위 표제어로 한 칸씩 내려서 ‘막되다(無法ない), 막된놈, 막말, 막별다(막버다), 막별이(막별이스군),

11) 다만 『朝鮮語辭典』에서는 “마구”의 ‘막’이 “(시간적으로) 방금”의 ‘막’보다 앞에 올라 있어 만약 어깨번호를 붙였다면 다른 사전들과 1, 2가 바뀌게 된다. 이는 하위 표제어를 한 칸 내려 같이 등재하는 체제를 가졌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많은 하위표제어를 가진 어휘를 먼저 올린 것 같다.

막불엥이(下等の 刻煙草), 막우[圖 無暗に, 例: 막우 作亂한다, 略: 막], 막우 발팡, 막우잡이(막잡이, 막치, 粗製品), 막초, 막필’을 등재하였다. 이 사전의 편찬 방식에 따르면 이들 하위 표제어는 모두 부사 ‘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에 있어서는 각각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주목 되는 것은 이들 하위 표제어에 ‘막걸리’가 빠지고 따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당시 ‘막걸리’, ‘막거르다’의 ‘막’을 “마구” 의미의 ‘막’과는 다르게 보았음을 알려준다.

(2 다, 라)는 현대에 ‘막-07’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많은 복합어들의 생성 역사가 어휘들마다 꽤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막’이 결합된 복합어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음식명 중 막걸리를 제외하고는 초기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큰사전』(1947-1957)이 편찬되는 시기에 이르도록 접두사 ‘막-’에 대한 文法範疇的 인식이 確立되지 않았으며 ‘막-07’이 포함된 초기 다양한 어휘들이 개별적으로 풀이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접두사 ‘막-’이 확립되는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그러한 고찰의 한 과정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음식명에 集中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막걸리’의 ‘막’은 어떤 의미이며 ‘막국수, 막소주, 막과자, 막장’ 등은 언제부터 어떠한 의미로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어휘의 출현과 접두사 ‘막-’의 발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막-’ 결합 음식명의 淵源과 意味

1. 막걸리

國立國語院 누리집에서 提供하는 ‘국어 어휘 역사’ 정보에는 ‘막걸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막걸리’는 국어사 자료에서 19세기에 ‘막걸이’로 나타나고, 20세기에 ‘막

걸리'와 '막걸리'로 나타난다. 이 세 어형의 차이는 음운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표기의 차이이다. 막걸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면, 찹쌀이나 보리, 밀가루를 시루에 찐 지에밥을 적당히 말려서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 온도에서 발효시킨 후,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짜낸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막걸리'는 동사 '거르다'에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막-’이 첨가되어 *‘막거르다’가 되고, 여기에 다시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막걸이에 취겨 반 일 만에 번철에 참기름을 고붓지거 쓰리고 <1869규합총서, 17a>, 막걸이 濁酒 <1895국한회어, 106>’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적어도 19세기부터는 ‘막걸리’라는 이름의 술이 있었고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짜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한다.

(4) 가. 無灰酒[卽常釀] 濁酒 [술] <재물보(1789)>

나. 无灰酒¹²⁾[卽常釀也] 濁酒 [此則无灰酒也] 막걸니 <광재물보>

『廣才物譜』를 보면 濁酒에 대하여 ‘막걸니’로 풀이하고 위 항목인 ‘无灰酒(无灰酒)’와 같다고 하였다. 이 ‘无灰酒(无灰酒)’는 ‘卽常釀也’라는 주석을 통해 일상으로 빛을 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광재물보』 이전에 나온 『才物譜』에는 ‘無灰酒[卽常釀] 濁酒 [술]’라고만 되어 있어¹³⁾ ‘막걸니(막걸리)’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18세기 다른 문헌에서도 ‘막걸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8세기 『재물보』 시기까지는 ‘막걸리’가 잘 쓰이지 않다가 19세기에 들어 ‘막걸리’가 널리 사

12) 필사본 영인본에는 ‘无(목멜 기)’로 보이나 『재물보』에 ‘無’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无’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無灰’는 축자적으로 “재가 없다”의 뜻일 텐데 막걸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13) ‘醪’가 ‘濁酒’ 뒤에 이어지는데 ‘汗滓酒’로 설명하고 있다.(아세아 영인본 p.615) 이를 보면 찌꺼기 술과 탁주를 구분하고 있는 듯한데 『훈몽자회』에서 ‘醪 탁주 료<訓蒙中11a>’라고 하여 순환되는 느낌이다. 16세기에는 濁酒가 넓게 쓰이다가 후대로 오면서 세분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 춘향전에서도 ‘막걸리’가 발견된다.

- (5) 가. 길가의 주막 짓고 한 영감이 안주서 막걸니 팔며 청을치 쏘며 반나마 부
르니 호여시디 “반나마 늙어시니 다시 점든 못호여도 이후나 늙지 말고
미양 이만이나 호엿고져 빅발이 제 짐작호여 더디 늙게”

<남원고사 4: 29b>¹⁴⁾

나. 니적성의 포도주 진쳐스의 국화주 마고선녀 천일주 산중쳐스 송엽주며
일년주 빅화주 이감고 감홍노 죽녁고 계당주 황소주 과호주 청주 모쥬
막걸니 모도 합히 혼돈주를 노즈작 잉무비의 기썩 찰찰 곳썩 부어 도련
님게 권홀 저기 불노초로 술을 비져 만년잔에 가득 부어 즈부시오 이 술
혼잔 잡으시면 호오리다

<춘향전_경판17장7b>

다. 어사또 드러가 단좌하야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압푸
노코 진양조가 양양할제 어사또 상을 보니 엇지 안니 통분하랴. 못써려
진 기상판의 닥치 저분 쏜나물 썩썩기 목걸이 한사발 노와구나.¹⁵⁾

<춘향가_완판 164>

『남원고사』는 춘향전 중에서 필사 시기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貴冊家에서 쓴 筆寫記를 통해 1864년부터 1869년 사이에 필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춘향전 이본 및 『광재물보』의 ‘막걸니’ 표기는 당시 ‘ㄹㄱ’ 연쇄가 ‘ㄹ니’으로 표기되는 일반적인 표기 경향을 고려하면 ‘막걸리’와 동일하게 보아도 문제없으며 완판본 춘향가의 ‘목걸이’ 표기는 어사또에 대한 대접이 너무 형편없고 눈치를 주어서 술도 목에 걸릴 것 같다는 비꼴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유희라 추정된다.

당시 널리 유통된 소설에 이렇게 ‘막걸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역시 ‘막걸

14) 고전소설 제이집 영인본 p.334. 이 부분의 ‘막걸리’에 대하여 다른 이본에서는 모주, 막주 등으로 나오기도 한다. 당시 막걸리, 모주 등이 주막에서 흔히 파는 대중적인 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 이 부분이 『남원고사』에서는 “운봉영장 하인 불너 상 하나홀 가져다가 이 낭반고 밧조오라 귀신 갓튼 아희놈이 상 하나홀 드러다가 노호니 어식 눈을 드러 살펴보니 모조라진 상 소반의 쓰더 먹던 같이 혼 디 디초 세 기 심를 두 닛 소곰 혼 좁 장 혼 종즈의 저런 김치 혼 보스기 모쥬 혼 스발 면 혼 그릇 덩그렇게 노핫거늘 남의 상 보고 닛 상 보니 었던 심정이 절노 난다”로 되어 있고 경판본에는 ‘막걸리’가 ‘박쥬’로 나오기도 한다.

리'라는 술과 명칭이 대중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막걸리'의 내적 구성 및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광재물보』에 나오는 술 중에 다음의 술들도 '막걸리'와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가. 混沌酒 [燒酒濁酒相和者] 醕 웃국술 醕 짝기술 鋼頭酒 주조목술

<廣才物譜, 飲食4a>

나. 막국 초가 시지 안니흐면 들지 초가 승겁다 흐나니라(頭醋不醕二醋薄)

<聯帖 水滸 20b>

나. 맛국 초가 식지 아니면 들지 초가 승겁다 흐니라(頭醋不醕二醋薄)

<奎章 水滸 51:128>

나". 웃국 초가 식지 아니며 들지 초가 승겁다 흐나니라(頭醋不醕二醋薄)

<水滸 50:92>

(6 가) 『廣才物譜』에 나오는 '醕 웃국술'은 술을 빚은 뒤 맨 먼저 떠내거나 거른 술을 말하고 '醕 짝기술'은 '웃국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짜낸 술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才物譜』에서 '醕 頭酒 웃국술, 醕 尾酒 짝기술'이라 하여 각각을 頭酒와 尾酒로 짝을 맺어 이해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6 나, 나, 나)을 보면 『水滸傳』의 여러 이본에서도 웃국-맛국-막국-頭的 대응이 발견된다. 이들 예는 朴在淵 주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에서 옮겨온 것인데 '막-국'을 "간장, 술 따위의, 익은 뒤에 맨 처음에 떠내는 진한 국"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웃국초'와 '웃국술'의 '웃국'은 모두 한자 '頭'와 대응되는 같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웃국'이 동일 원문의 다른 이본에서 '맛국'과 '막국'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의미상 '만'이 뜻하는 '만'의 받침 'ㄷ'이 'ㅅ'으로 표기되어 '맛국'이 되고 다시 'ㄱ'에 동화되어 '막국'이 '막국'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결 고리들을 중시하면 '막국'의 '막'은 "처음"의 의미를 가지는 '頭'에 대응한다. 그런데 '막국(웃국)'이 걸러내는 간장, 술 따위에 한정되므로 '막걸리'의 '막' 역시 '막국'의 '막'과 연결 고리를 가진다.¹⁶⁾

16) 이에는 'ㄱ'이라는 동화주가 후행하는 공통점도 고려된다.

물론 ‘濁酒’에 대하여 ‘막걸리’로, ‘醕’에 대하여 ‘웃국술’로 구분하고 있어 이들의 성격은 다른 것이지만 둘 다 거른 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¹⁷⁾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설명대로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짠’ 술을 막걸리로 이해한다면 “그대로”에서 처음 바로 걸러 냈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적 연결 고리와 음상의 동일성은 ‘막걸리’라는 명칭의 등장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것이다.¹⁸⁾

술을 빚을 때 보통 술이 익으면 청주를 먼저 떠내거나 거른 뒤에 남은 찌꺼기를 짜서 술을 얻는다. 그런데 청주를 먼저 떠내거나 거르려면 시간과 공력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양도 적어서 가정에서 일상으로 먹기에는 부담이다. 그래서 (3)의 설명과 같이 술이 익으면 청주를 따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바로 걸러 만드는 술이 일반적으로 제조되었을 것이고 청주를 떠 내지 않은 술 그대로이므로 술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물을 부어 양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술이 익으면 바로 거르는 것은 다음의 시가 작품에서 확인된다.

- (7) 가. 아히야 그믐 내어 漁缸에 시러 노코 달 꺾 술 막 걸러 酒樽에 다마두고
 어즈버 빅 아직 노치 마라 돌 기드려 가리라 <靑丘永言_珍本, 307>
 나. 아춤에 採山호고 나조히 釣水호새 갓 꺾여 닉은 술을 葛巾으로 밧타 노
 코 꺾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賞春曲 不憂軒集>

『靑丘永言』은 1728년에 金天澤이 엮은 古時調集이다. 이 시조집에 나오는 (7 가) 시조를 보면 ‘달 꺾 술 막 걸러 酒樽에 다마두고’라는 표현이 있다. (7 나) 15세기 정극인의 상춘곡에 나오는 ‘갓 꺾여 닉은 술을 葛巾으로

17) 『한영자전』(1897)에서 ‘막걸리’의 관련어로 ‘막걸리 걸으다’가 나오는데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짜내는 술이 아니고 거르는 술이라고 판단된다.

18) 한편 서정범(2000)에서는 ‘銅頭酒 고조목술 <譯語上50a>’에 대하여 ‘銅頭’가 중국어로 ‘막, 지금, 방금’의 뜻을 지니므로 ‘銅頭酒’는 ‘술주자에서 갓 짜낸 술’로 ‘막걸리’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銅頭’가 중국어로 ‘막, 지금, 방금’이라는 설명은 ‘銅’을 ‘剛’의 통용자로 보고 ‘頭’에도 ‘처음’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銅頭’가 중국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아직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서정범(2000)에서 막걸리의 특징을 ‘갓, 바로’에 둔 것은 ‘막’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빏타 노코'라는 표현도 이 표현과 같이 자연에서 安貧樂道하며 편하게 술을 걸러 마시는 興趣를 노래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 두 표현의 대응과 막걸리 제조법을 참고했을 때 '막 거르다'의 '막'은 "(시간적으로) 익자마자 바로"라는 의미와 "(갈건과 같이 올리) 성기고 굵게"라는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막 거르다'의 '막'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를 고른다면 "익자마자 바로"의 뜻일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18세기 이전에는 '막' 형태보다는 '마구(마고)'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¹⁹⁾ 수식하는 동사도 주로 '눈물이 마구 흐르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휘두르다, 당기다, 바르다' 등의 거친 동작을 나타내어 "성기고 굵게"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익자마자 바로"라는 의미는 "성기고 굵게"라는 의미를 함의할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익자마자 바로 걸러 마시려면 빨리 걸러지는 성기고 굵은 천이 필요하지만 성기고 굵은 천에 거른다고 하여 익자마자 바로 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이 '頭'에 대응되는 연결 고리를 가진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2. 막국수

'막국수'는 '막걸리'와 달리 20세기 자료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인쇄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시기의 기록은 것은 다음 <每日新報> 기사다.

- (8). [平壤] 부내 선교리(府內 船橋里)에서 소위 막국수(黑麵)을 먹고 八명이 중독(中毒)된 사건이 있다 <1934년 7월 13일, 매일신보 4면, 평양의 명물 냉

19) 이러한 사실은 2장의 초기 사전류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보이는 것이 1690년에 간행한 『역어유해』의 “活綫 살오 띠다. 死綫 막 띠다. 活鎖 살오 즈모다. 死鎖 막 즈모다 <譯語下46a>”에 보이는 '막'이 다. '막 띠다, 막 즈모다'는 “마구” 의미와 통하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의 '막'은 '살오'와 대비되는 의미상 '막즈르다'에서 보이는 '막'과 같이 “막다” 의미에 가깝다는 점에서 '마구'의 준말인 '막'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는 『역어유해보』(1775)에서 '마구가 '亂扯 마구 드리다'와 같이 '亂'에 대응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면 먹고 일명 사망 십명중독, 원인은 상한 제육을 느은 까탁>

이 기사를 보면 제목에는 ‘冷麵’이라고 했으면서 기사 본문에는 ‘소위 막국수(黑麵)’라고 쓰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적어도 平壤에서는 막국수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이었으며 이 ‘막국수’는 당시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냉면’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막국수를 ‘黑麵’으로 병기하여 막국수의 색깔이 검었고, 이러한 특징을 따라 일반적인 냉면이나 메밀국수와 구분하여 ‘黑麵’이라는 명칭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막국수’라는 음식명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기로 하자.

먼저 음식점에서 販賣되었다는 것은 ‘막국수’라는 이름이 사회성을 가지고 널리 퍼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국수는 여러 음식조리서나 한글 편지 등에서 등장하는, 우리 조상들이 즐기는 음식이었다. 특히 냉면은 평양의 대표 음식으로 오래 전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였다. 18세기 후기 지도인 <箕城全圖>에는 평양성에 냉면을 파는 가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²¹⁾ <기성전도> 오른쪽 아래 大同門이 있고 그 아래 東砲樓 바로 안쪽으로 ‘冷麵家’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상으로 板橋洞과 香洞 사이에 위치에 있고 배가 많이 정박해 있는 하구 쪽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냉면집(大同麵屋)이 평양 船橋里 소재라고 하였는데 이 船橋里의 漢字를 참고하면 <기성전도>의 ‘冷麵家’ 자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선착장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냉면집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은 ‘냉면’이라는 음식이 상당히 대중적이었고 이 냉면의 아류 음식도 많이

20) 현재 춘천에서 영업 중인 막국숫집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도청에서 멀지 않은 소양로2가(요선동)에 위치한 ‘실미막국수’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주인 할아버지는 ‘①지금 막 만들어 바로 먹어서, ②겉질 짜 막 뺏아서 ③검기 때문에’ 막국수라고 하셨다고 한다(한국일보 1983년 8월 21일 8면의 <鄕土 음식으로 손꼽는 春川 막국수>라는 기사와 2016년 6월 27일 현재 주인의 증언 참조).

21) 箕城全圖에 대한 정보는 한림대 한림과학원 이경구 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한영우 외(1999: 210)는 이 지도가 18세기 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소개하였으며 서울대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1849년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 「月內, 十一月」을 보면 “메밀국수를 무김치,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섞은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 또 여러 가지 채소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에 썬 것과 기름간장을 메밀국수에다 섞은 것을 골동면이라 한다. 평안도 골동면이 으뜸이다.”²²⁾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참고하면 재료를 중시하여 ‘메밀국수’라는 명칭이 있고 국물과 함께 끓이지 않는 調理法을 중시하여 ‘냉면’이라는 명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냉면’은 기본적으로 메밀국수이다. 그리고 당연히도 막국수 역시 메밀을 주재료로 하는 국수이다. 그렇다면 ‘막국수’는 일반적인 ‘냉면’과 ‘메밀국수’와 동류이면서 ‘막’이라는 어휘에 대응하는 차이를 가진다.



〈그림 1〉 1930년대 춘천시 약도에 보이는 ‘方氏막국수집’

〈그림 1〉은 1930년대 춘천 약도의 일부분인데 이 그림의 중앙 약간 아래쪽에 ‘方氏막국수집’이란 상호가 보인다.²³⁾ 앞에서 언급한 <매일신보>의 기

22) 『동국세시기』의 기록은 강명관(2010)을 참조하였다. 강명관(2010: 153~165)에는 국수에 대한 여러 기록을 소개하였는데 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풍속화 「국수 누르는 모양」을 비롯하여 <개벽>, <별건곤> 등에 나오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 시기의 냉면, 메밀국수 관련 풍속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막국수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사와 이 그림을 보면 1930년대에는 ‘막국수’가 북한 지역 및 춘천에서 대중적인 음식으로 ‘냉면’의 아류 격으로 팔렸고 그 명칭 역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40년대까지도 막국수에 대한 기록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9) 가.八만 개성부민이 다 갖치 오랫동안 고대했던 모밀(蕎麥) 특별배급이 나왔다. 이번 특별배급은 모밀 六十五석(石)을 모밀국수를 누르는 三十명의 조합원에 할당을 하여 이것을 각 음식점 냉면집 여관 요리점에 적정 배급을 하여 一만 수용 고객에 응케 하는 외에 각 가정에서도 적정 수요 수량에 의하여 모밀국수를 제조하는 곳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냉면만은 냉면집에서만 팔기로 되었다.

<1943년 8월 12일, 매일신보 6면, 開城서 모밀국수 特配>
나. [開城] 국수의 누르는 방법도 평양식과 서울식이 다르다. 서울에서는 분공이 위에 여러 사람을 타고 앉아서 누르지만, 평양에서는 새다리[梯子] 같은 것을 놓고 한 사람이 분공이 위에다 등을 대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 새다리를 한 칸 한 칸씩 발로 뺀다며 누른다. 냉면 많이 먹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냉면 누르는 무슨 편리한 기계 하나를 발명하지 못한 것은 참 冷笑할 일이다. <「珍奇! 大珍奇, 여름철의 8大珍職業」(松雀生), <별건곤> 41호, 1931년 7월호>²⁴⁾

한국언론재단 고신문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해방 전까지의 메밀국수에 대한 기사는 (9 가) 한 가지인데 메밀국수를 눌러서 파는 조합원과 가게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과, 냉면은 메밀국수 중에서도 특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메밀을 특별 배급하여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소개한

23) 이 약도는 춘천국민학교 동창회(1986: 118)에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춘천MBC 황병훈 피디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이 약도는 졸업생 成耆昌 씨(1936.3 졸업)가 작성하였고 여러 同門의 考證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순메밀을 손반죽해 나무틀로 눌러 뽑아 면발이 많이 물렸다. 그래서 올챙이국수처럼 뜨거운 육수를 넣고 들이마시듯 먹었다’는 설명이 있다.

24) 이 기사는 강명관(2010)에서 그대로 것이다. 이외에 원문을 확인한 다른 기사들은 원문의 표기를 따르되 띄어쓰기는 현대 맞춤법을 따랐다.

기사의 성격상 ‘막국수’가 등장할 만도 한데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증거로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막국수’가 일반적인 냉면과 메밀국수와는 구별이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9 나)는 냉면을 만들기 위해 냉면을 누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음을 소개한 것인데 냉면과 같이 가늘고 차지기 위해서는 반죽도 밀도가 있어야 하고 국수가 나오는 구멍도 작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국수를 누르기 위해서는 틀도 견고해야 할 뿐 아니라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누르거나(서울식) 한 사람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온 몸의 무게를 이용하여 누른다(평양식).²⁵⁾ 그런데 막국수는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나 농촌의 일반 가정에서도 직접 눌러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를 수 없다. 막국수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기사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0) 春川 지방의 「순메밀막구수」 하면 어린이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순메밀만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이 막국수는 平壤냉면이나 咸興냉면처럼 질긴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사리를 입에 넣어 씹을 때 흠·돌가로 같은 것이 한데 섞인 것처럼 찌꺼찌꺼하는 맛이 별미다. 전면적의 8할이 산이고 산중에서도 다른 어느 道보다도 화전이 많은 江原道라 메밀의 특미가 없을 수 없다. 긴긴 겨울밤 널찍한 사랑방 다게진 화로불 곁에 둘러앉은 동네 사람들이 독한 엽초담배를 피워 가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배가 출출해지면 당장에 메밀을 갈아 눌러 먹기 시작한 게 이 막국수의 기원이다. 깎박이는 아주까리등불 앞에서 메밀을 맷돌에 막 갈아 체로 쳐서 반죽을 갠 다음 나무로 만든 분틀에 눌러 사리를 만들어 막김치를 송송 썰어서 국수 위에 얹어 먹는 것이 막국수다. 요즘의 좋은 냉면그릇보다는 바가지에 담아 먹어야 제맛이 나며 국물도 지금은 김치국을 부어먹지만 막간장에 비비는 것이 제맛이 난다. <1967년 10월 5일, 동아일보 6면, 메밀막국수>

(10)은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로 ‘막국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5) 평양식 국수 누르는 모양은 전술한 金俊根이 그린 풍속화 「국수 누르는 모양」에 잘 표현되어 있다.

먹고 싶을 때 바로 메밀을 맷돌에 갈아 체로 쳐서 나온, (그래서 별로 곱지 않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나무로 만든 분틀에 눌러 만든다. 이러한 설명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겉껍질만 벗겨 낸 거친 메밀가루로 굵게 뽑아 만든 거무스름한 빛깔의 국수”라는 막국수에 대한 풀이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결국 ‘막국수’는 냉면과 같이 메밀국수의 종류이지만 순메밀만을 사용하며 먹고 싶을 때 바로 가루를 만들어 분틀에 눌러 바로 만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메밀을 그냥 갈기 때문에 검은 겉껍질이 섞이고 집에서 나무틀로 누르기 때문에 면발이 차지지 않고 굵다는 특징도 수반하게 된다. 또 이러한 특징들로 냉면보다는 저급의 이미지도 갖는다.²⁶⁾

이러한 특징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막국수’의 ‘막’은 부사 ‘마구’와는 거리가 멀다. 춘천 막국수집에 가면 ‘막 눌러서 막 먹기 때문에 막국수라고 한다’라는 주인장의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막’을 ‘마구’로 대체하면 ‘마구 먹는다’는 바로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구 누른다’는 ‘힘껏 세게, 함부로 누른다’는 말이 되는데 냉면보다 누르는데 힘이 덜 들어가는 게 막국수이므로 냉면과 구분하기 위한 명칭으로는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막 눌러서 막 먹는다’는 ‘바로 눌러서 바로 먹는다’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고 ‘막국수’의 ‘막’이 ‘마구’보다는 ‘(시간적으로) 바로’의 의미를 가지는 ‘막’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막간장, 막장

된장, 고추장, 간장은 모두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으로 메주를 이용하여 만든다. 그런데 이들 된장, 고추장, 간장과 구분되는 ‘막장’과 ‘막간장’이 존

26) 이 논문에서 ‘막국수’와 구분되는 것은 총칭적인 ‘국수’가 아니고 ‘냉면’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상의 구분을 위한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을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음식의 재료 가공 및 조리법은 지역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군가 ‘막국수’로 보는 음식을 누군가는 ‘냉면’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리고 냉면을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상 막국수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8)의 냉면과 막국수가 같이 등장하는 매일신보 기사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한다. ‘막장’과 달리 ‘막간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지만 (10)의 마지막 부분에 ‘막간장’이 언급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네 식 생활에서 한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렇다면 ‘막장’, ‘막간장’이라는 음식명에 결합되어 있는 ‘막’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는 ‘막장’과 ‘막간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을 위시한 여타 사전에서는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실제 주변의 연세 드신 분들도 막장, 막간장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자신의 조리법대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 (11) 가. 인체에 해로운 막간장을 만들어 팔아 오던 서울 味元 주식회사(대표=林正洪)가 20일 영등포 보건소에 의해 간장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중략) 그런데 간장은 「두루탄인산」을 주성분으로 콩과 보리를 혼합하여야 함에도 화학약품 작용으로 막간장을 만들었다 한다.

<1966년 4월 21일, 경향신문 3면, 有害 막간장을 摘發>

- 나. 15일 오전 서울 永登浦 보건소는 인체에 해로운 막간장을 허가 없이 대량 제조 판매한 대한장유공업협동조합(이사장=朴昌湓)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永登浦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장을 빌려준 중앙식품공업의 장유 제조 허가를 취소했다. 보건소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작년 6월 1일부터 반년 동안 폐액처분된 간장 원료 「구루타닌산」 1천1백84 「드림」을 구입, 중앙식품 공장을 빌어 상표가 없는 막간장 1만여 「드림」을 허가 없이 만들어 시중에 판 혐의다.

<1966년 6월 15일, 동아일보 3면, 有害 막간장 大量製造 판매>

- 다. 샘표간장은 현재 「글루타민」 산폐액(맛난이 제조후 남은 찌꺼기)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의 일종이다. 이른바 주부들이 말하는 “막간장”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요즘의 장유업계 실태에서 볼 때 콩·밀 등 곡식을 미생물학적으로 발효시켜 제조하는 천연간장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중략>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장 중에서 폐액 간장인 막간장을 비롯해 중소장유공장에서 정상·비정상의 판매 「루투」를 통해 유통되는 간장의 대부분은 영양분인 단백질의 함유량이 부족하고 독소인 비소와 중금속이 허용량 이상으로 들어 있음은 국민위생을 크

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7년 5월 8일 매일 경제 2면, 鳳凰賞을 탄 이 商品의 특징은! (10) 상표간장>

라. 어느 가정이나 진간장은 사서 먹는 경우가 많다. 상표가 뚜렷한 것도 있지만 많은 행상들이 말장을 병으로 팔고 다닌다. 깨끗한 흰색 접시에 간장을 약간 따라서 맛과 빛깔과 향기를 본다. 접시를 한쪽으로 기울였을 때 접시 밑에 묻어 있는 간장빛이 투명하고 적갈색을 띠면서도 윤기가 나는 것은 좋은 간장이고 빛깔이 검고 먹물같이 탁한 청색을 띠는 간장은 대개가 좋지 못한 간장이다. (후략)

<1965년 4월 10일, 경향신문 6면, 간장 감별법>

막간장에 대한 정보는 釀造간장을 전혀 섞지 않고 화학조미료 찌꺼기를 이용하여 만든 폐액 간장이 66년에 당국에 적발되면서 신문 기사화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가, 나, 다)와 당시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味元, 味豊, 장유공업협동조합 등에서 수만 드림의 廢液 화학간장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수만 드림이면 당시 엄청난 규모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런 만큼 ‘막간장’에 대한 충격도 컸을 것이다. 이전의 막간장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만든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막간장도 원래는 묵히는 시간이 적게 드는 성격의 간장이었으리라 추측된다.²⁷⁾ 하지만 싸게 유통되는 질 안 좋은 간장의 이미지가 ‘막간장’이라는 이름에 덧입혀지고 66년 ‘막간장’ 사건으로 ‘막간장’과 그 명칭이 아예 사라졌으리라 추측된다.

참고로 (11 라)는 막간장이 工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이전의 기사인데 원래는 5년 이상 묵혀야 하는 ‘진간장’을 産業化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의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많이들 사 먹었다는 것을

27) ‘한국전통지식포털’(네이버 검색)의 설명을 보면 재래간장(콩만을 원료로 하여 담근 간장)에 막간장과 겹간장이 있고 막간장은 ‘메주를 소금물에 담그어 만든 보통간장’을 말하고 겹간장은 ‘메주를 간장에 담그어 만든 진간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재래간장의 또 다른 분류로 청장(淸醬), 중간장, 진간장(津-醬, 陣良醬)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진간장은 5년 이상 묵혀 아주 진하게 된 간장을 말한다. ‘그 옆에 해를 묵혀 걸쭉해진 진간장과 진하지 않은 간장 청장 항아리가 놓이고...《최명희, 혼불》’를 참고하면 이 분류가 더 전통적인 분류인 것 같고 현대에 와서 ‘막간장, 겹간장’은 변형된 분류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같을 것이므로 겹간장이 오래 묵힌 ‘진간장’에 대응한다면 막간장은 짧은 기간 묵힌 청장이나 중간장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알려 준다. 그런데 이 기사에 행상들이 ‘말장’을 병으로 팔고 다닌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 ‘말장’이 ‘막간장’과 관련을 가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다만 막간장과 관련하여서 여기서는 상업적 대량 유통 과정에서 ‘막’에 “저급의” 이미지가 덧붙었다는 것만을 강조하기로 한다.

‘막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막간장과 달리 지금도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다. 특징은 간장을 우려낸 메주가 아닌 메줏가루를 사용하고 고추씨가가루를 같이 넣어 고추장의 대용 식품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 (12) 가. 막장 ◇만드는 법=①보릿가루는 굵게 만들어 엇기름 물을 붓고 보리죽을 쑤어서 식힌다. ②보리죽 식은 데에 고추씨가가루와 메주가루를 넣고 저은 후에 소금으로 간을 하여 꼭 봉해 둔다. ③약 40일 후면 피꼬리빛 같이 노란 막장이 된다. ※막장의 향기는 한국 고유의 냄새이기도 하고 간장을 빼지 않은 막장은 용도가 많다. 장찌개와 국에 넣어도 맛이 있고 여기에 찹쌀가루를 섞어 마늘, 파를 다져 넣고 빻아 말린 다음 기름을 발라 굽기도 한다. <도움말=王峻連씨>

<1976년 2월 25일, 매일경제 8면, 맛있는醬 담그기>

나. 그러나 그간 누룩의 질이 좋아지고 음식점에서 개량메주를 사용한 숙성 된장 고추장 등을 많이 써 그 맛이 일반에게도 친숙해졌다. (중략) 개량메주는 고추장과 막장 담그는데 많이 쓰인다. 개량메주는 장을 담가도 빨리 익으며 담근 해로 먹을 때는 달콤한 맛이 나며 더 맛이 좋다고 하는 주부들도 있다. 그러나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이라도 오래 두고 먹는 데는 재래식 메주를 사용하는 것이 깊은 맛이 나고 변하지 않는다. (후략) <1983년 3월 5일, 동아일보 11면, 음력正月은 장담그는철...맛과 영양을 살핀다 개량 메주>

다. <막장> 간장을 우려내지 않은 메주로 직접 만든 막장은 빨리 담글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수에 버무려 담그면 고기 없이 된장찌개를 해도 맛이 좋다. 재료로 쇠고기 양지머리 2근 멸치 2근과 엇기름 한 되 찹쌀

한 되 개량메주 5kg 고추씨 반 되를 각각 가루로 뿜아 놓는다. 찹쌀과 고추씨는 굵게 뿜고 개량메주는 굵은 것이 오히려 좋다. 소금은 2되 반을 준비한다. 쇠고기에 물 한 말 반을 붓고 고기에 젓가락이 들어갈 만큼 푹 삶는다. 고기를 건져내고 육수에 다시 멸치를 넣고 물의 양이 한 말 정도 남을 때까지 끓여 식힌다. 엿기름은 자류에 넣어 물 3되에서 주물로 우려낸 다음 그 물에 찹쌀가루를 넣고 은근한 불에서 두 되 정도 되게 졸인다. 이것도 식혀서 육수와 섞은 다음에 메줏가루 고추씨 가루 소금을 넣어 버무린다. 항아리에 담고 위에 소금을 조금 더 뿌린 후 꼭 봉해 두면 보름 후면 먹을 수 있다. 뚝배기에 이 막장을 풀고 두부와 파 풋고추를 썰어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따로 고기가 안 들어가도 맛이 훌륭하다. 이렇게 담근 막장은 다섯 식구가 석 달 쯤 먹을 수 있다. 그 이상 오래 두면 맛이 변할 수 있다. 막장은 아파트에서 두 세 집이 함께 담가 나누어 먹어도 좋다.

<1985년 9월 16일, 동아일보 7면, 간장·고추장 “집에서 담그자”>
라. <고추장 담그는 법> ○재료·고춧가루(600g짜리 2봉), 메줏가루 1kg, 엿기름 1kg, 찹쌀가루 3kg, 소금, 물 적당량

<막장 담그는 법> ○재료·메줏가루 5kg, 보리쌀 800g, 소금, 막고춧가루 또는 고추씨가루 약간, 끓여서 식힌 물이나 엿기름 물

<1991년 2월 28일, 매일경제 24면,醬은 내손으로 담가야 제맛>

(12)는 막장 조리법에 대한 소개를 옮겨 놓은 것이다. 누룩을 이용하여 속성으로 발효시키는 일본식 개량메주가 70년대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12 나)를 보면 80년대 이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막장은 60년대부터 찌개, 무침 등의 조리법의 재료로 많이 등장한다. 막장의 제조법은 (12 가, 다, 라)와 같이 약간씩 다르다. 특히 (12 다)의 ‘막장’은 과정이 복잡하고 재료도 찹쌀, 소고기 등 비싼 재료가 들어가 매우 고급스럽다. 그렇지만 공통되는 점은 메줏가루와 고추씨가루가 사용되고 고추장, 된장보다는 담근 후 묵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재료와 시간적인 면에서 막국수와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12 라)에서는 막장에 대한 약간의 다른 이미지기 덧입혀진다. 고추장과 막장 담그는 법을 소개한 기사인데 지면을 줄이기 위해 재료만을 옮겼다. 이를 보면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메줏가루보다 많고 찹쌀가루가 들어가는 반면 막장은 메줏가루가 중심이고 고추씨가루(막고춧가루)가 약간 섞이며 찹쌀가루 대신 보리쌀(보리죽의 재료)을 사용한다. 원래 고추장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찹쌀, 밀가루, 보리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사용하는데 (12 라)에서는 고추장은 찹쌀, 막장은 보리쌀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고추씨가루’와 함께 ‘막고춧가루’²⁸⁾를 고추장에 들어가는 일반 고춧가루와 대별하고 있다. 이러한 대별은 70년대와 80년대의 고추장, 막장을 함께 다루는 기사에서 보이지 않던 것으로 90년대 들어 고추장과 비교하여 막장을 저급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 생각된다.²⁹⁾

4. 막과자, 막소주

막과자와 막소주는 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싸게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음식으로 고급 과자, 고급술과 대비하여 서민들이 많이 먹었다. 막과자와 막소주는 막걸리, 막국수, 막장 등과는 달리 집에서 먹기 위해 만들었다기보다는 저가의 제품을 찾는 서민들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고가의 제품군과 대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포장이나 형태가 규격화되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태생에 있어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 (13) 가. 국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탈세 미연 방지 및 酒質 보장을 위해서 종전에 일부 소주업체에서 소주를 오지그릇(말술)에 넣어서 공급해 온 것을 瓶에 넣어 공급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후략) <1966년 8월 10일, 매일경제 3면, 다시 檢討돼야 할 古瓶 再使用 - 막소주 · 藥品 · 간장 · 飲料에 >

28) 여기서 막고춧가루는 고추씨를 빼지 않고 거칠게 빻은 고춧가루로 이해된다.

29) (12라)에서 <막장 담그는 법>만을 보면 “저급의” 의미는 읽히지 않는다. 하지만 <고추장 담그는 법>과 비교하면 고추장에 비해 저급의 이미지가 읽히고 이러한 이미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허드레로 먹기 위한’이라는 뜻풀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나. 한편 농촌에서도 종전의 막걸리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그 대신 막소주가 크게 수요되고 있는데 농촌 역시 주도가 높은 막소주가 막걸리에 비해 도리어 값이 싸고 취기가 더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택하고 있다. <1967년 1월 28일, 매일경제 4면, 中小 양조장 危機直面>
- 다. “학규는 곧 길가 구멍가게에 들러 막소주 두접을 사 마셔 보았다.”
 <1970년 8월 5일, 동아일보 4면, 흔들리는 山河(124)>
- 다. 바로 공원 앞 거리에 막소주와 함께 허드레 국수를 파는 포장 리어가 있었다. <1970년 8월 12일, 동아일보 4면, 흔들리는 山河(130)>
- 라. 막소주를 비롯한 소주값이 들먹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국세청에 의하면 稀釋소주연합회는 酒精값의 인상을 들어 지난 1일부터 막소주 값을 度數에 따라 11.2%에서 12%까지 올렸으며, 眞露를 비롯한 기타 고급 소주값도 계속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72년 3월 6일, 경향신문 2면, 소주값도 들먹 막소주는 12% 올라>

(13)을 보면 66년 이전에 소주를 유리병이 아닌 오지그릇(말술)에 팔았었고 이렇게 파는 소주를 ‘막소주’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³⁰⁾ (13 라)에서 막소주와 대비되어 같은 稀釋式 소주임에도 고급 소주로 명시되어 있는 眞路 소주를 언급하고 있어 고급 소주와 막소주가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막소주가 (13 나)의 기사를 통해 막걸리의 대용주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른 기사를 참고하면 막걸리를 만드는 지방의 양조장에서 막소주도 제조하였는데 판매나 소비에 있어 막소주가 막걸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13 다)를 통해 막소주가 막걸리처럼 구멍가게나 포장마차에서 잔 단위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막소주와 막걸리의 대응을 보여준다.

고급 소주와 상대되는 ‘막소주’에서는 ‘막’이 자연스럽게 “저급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고급 소주와 대비되는 막소주의 성격과 막걸리를 제조하

30) 오지그릇에 팔호를 하고 ‘말술’을 병기했는데 ‘한 말 술’은 아닌 듯하다. 앞에서 많은 행상들이 말장(막간장으로 추정)을 병으로 팔고 다닌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후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는 중소 규모의 양조장에서 막소주를 같이 제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걸리’와 ‘막소주’의 대칭이 확연해지며 ‘막소주’의 이름도 ‘막걸리’와의 연관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막소주의 ‘막’이 “저급의”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면서 거꾸로 언중들에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던 막걸리의 ‘막’도 막소주의 ‘막’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실하게 재해석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재해석에는 ‘막담배’, ‘막일’ 등 다른 단어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며 日帝 통치하에서 막걸리의 질을 낮추고 일본 술을 들여와 ‘막걸리’의 이미지를 좋지 않은 술로 만든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막과자’도 상업적인 대량 생산과 맞물려 저급 과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막소주와 성격이 같다.

- (14) 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판자집 하나를 빌려 가지고 막과자 나부랭이를 만들어 파는 동안, 고향 유지들이 황씨의 인격을 존경하여 순전히 피난민의 자제만을 상대로 한 야간중학교를 용두산 기슭에다 세워 놓고 황일봉 씨를 교장으로 추대하였다.

<1955년 5월 20일, 경향신문 4면, 愛人(224)/金來成>

- 나. 부정식품 단속 기동반을 편성하고 24일 정오부터 단속에 나선 서울시 보사당국은 단속 4시간만에 1「트럭」 분인 4천여점의 부정식품을 적발, 폐기처분했다. (중략) ▲애플과자 4천2백g ▲막과자 2천6백50g(1백41봉지)

<19660225, 경향신문 3면, 수두룩 不良食品>

- 다. ◇덕성제과 ▲막과자=뉴슈가2% ◇롯데제과 ▲빠다크림빵=뉴슈가0.1% ▲크로바빵=뉴슈가0.7% (후략) <19691028, 경향신문 3면, 밝혀진 사이클 라메이트(發癌甘味料) 食品, 大業體도 대부분, 어린이엔 1.2g이면 유해>

(14 가)는 경향신문에 연재된 金來成 소설 『愛人』의 일부인데 소규모 제과업을 하던 황일봉 씨가 일사후퇴 후 부산에서 판자집에서 막과자를 만들어 팔았다. 육이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黃皙暎의 『흐르지 않는 강』에서도 ‘센베이 막과자’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이때의 막과자는 소규모 업체나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파는 전병 과자 등속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막과자와 대립되는 다른 종류의 과자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14 나, 다)를 통해 1960년대 이후에도 대량으로 생산되어 불량식품, 유해식품으로 자주 거론된다. 특히 당시 큰 업체였던 덕성제과에서 發癌甘味料가 잔뜩 들어간 ‘막과자’를 ‘막과자’라는 제품명으로 만들어 팔았다는 사실은 ‘막과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막과자’는 대량 생산되면서 불량 식품, 유해 식품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이미지는 ‘막소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IV. ‘막-’의 發達에 관한 몇 문제

1. 國語辭典의 ‘막-’ 등재

우리는 앞에서 초기 사전에 접두사 ‘막-’에 대한 문법적 인식이 없었으며 막걸리, 막국수, 막장 등에 있는 ‘막’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풀이하는 접두사 ‘막-’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접두사 ‘막-’은 언제부터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하였고 의미상의 괴리는 언제부터 두드러졌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국어사전들을 검토해 보았다.

1961/1971	(초판)국어대사전	이희승, 민중서관
1974/1986	(제7차 수정 증보)새 우리말 큰사전	신기철 · 신용철, 삼성출판사
1979	새국어대사전	남광우, 이상사
1982/1989	(2판)국어대사전	이희승, 민중서관/민중서림
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금성출판사.
1991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4/1999	(3판)국어대사전	이희승, 민중서관/민중서림

1998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두산동아
1999/2017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표 2〉 역대 국어사전

1961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의 경우 82년 수정 증보판(2판)이 나오고 십여 차례 쇄를 거듭하면서까지 접두사 ‘막-’이 표제어로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1994년 3판에 이르러 “‘거칠거나 품질이 낮은’, ‘마구 하는 또는 닦치는 대로 하는’, ‘거칠거나 마구잡이로 하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막-’이 포함된 파생어로 “막고춧가루, 막담배, 막노동, 막별이, 막일, 막되다, 막보다(알보고 마구 대하다)”를 들었다.³¹⁾ 1991년 이후에는 다른 사전들에서도 모두 접두사 ‘막-’을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막-’의 다의어 처리와 그 용례에 있어서는 사전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막살이’, ‘막별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시각도 사전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접두사 ‘막-’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내용의 방대함으로 우선 음식명에 붙은 ‘막-’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전 기술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은 후고로 미룬다. 다만 “품질이 낮은” 의미와 “거친”의 의미가 『금성판 국어대사전』을 제외하고 1991년 이후의 모든 사전에서 하나의 의미로 묶이는 점이 공통되고³²⁾ ‘막배’, ‘막고춧가루’와 같은 공통적인 대표적인 용례 외에 ‘막국수’와 ‘막과자’ 용례가 이 의미로 포함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어사전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접두사 ‘막-’에 대한 언어학적 인식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며 사전들마다 기술 양상이 다른 만큼 그 기술이

31) ‘막국수’, ‘막과자’는 2판에서부터 등재되는데 3판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막-’의 용례에 넣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32)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곱게 뺀지 않은, 거친, 아무렇게나 마구 만든’으로 풀이되어 있는데 각각 ‘거친’과 ‘품질이 낮은’ 의미에 대응된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이러한 부정확함을 고려하면 의미와 기원을 부사 ‘마구’와 연결시키는 것은 현대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막걸리, 막국수’의 ‘막’은 부사 ‘마구’보다는 “(시간적으로) 방금”의 뜻을 가진 ‘막’과 더 가깝다. 따라서 이들 음식명에 붙은 ‘막’은 “품질이 낮은, 마구 만든” 등의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는 ‘막과자, 막소주’와 같이 공업화, 산업화가 진행되는 초기의 저가 생산품의 이미지가 덧입혀진 결과이고 후대의 ‘막간장, 막장’ 등에 대한 기록에서도 이렇게 덧입혀진 부정적인 의미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막걸리, 막국수의 ‘막-’의 의미가 “(시간적으로) 방금”의 의미라면 어떻게 “품질이 낮은”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을까? 산업화, 공업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미가 덧입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한 답은 ‘막-’이 결합된 모든 복합어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마지막” 의미의 ‘막’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막초’ 풀이는 ‘질이 낮은 살담배’이다. 이는 ‘막-07’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국한회어』에서는 ‘막초’를 한자어로 ‘末草’에 대응하고 있고 『國漢會語』의 초고 성격인 乾의 『국문자집』 하권에는 ‘막초’에 대하여 ‘南草之末根’이라고 하였다. ‘末’은 “마지막, 지엽, 중요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末草’의 ‘末’은 담배 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끝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國漢會語』에서 이 ‘末草’를 ‘막초’에 대응하고 있어 ‘末’과 ‘막’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³⁴⁾

‘막초’에 대하여 이후 『한영사전』(1897)에서는 “Inferior tobacco. Opp. 상초(上

33) 문법서에서도 ‘막-’에 대한 관심과 고찰은 오래지 않다. 안효경(1994: 36)는 접두사 ‘막-’이 부사 ‘막(마구)’과 의미가 다르지 않고 ‘마구잡다, 막보다’에서처럼 후행요소가 동사라는 점을 들어 접두사 ‘막-’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허웅(1995: 426)에서는 접두사로 “마지막”을 뜻하는 ‘막-’만 소개되어 있고 “품질이 낮은”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로 ‘돌-’을 들고 있다.

34) 앞에서 ‘막간장’을 논의할 때 (11 라)의 ‘말병’을 주목하였는데 ‘막초-말초’를 고려하면 ‘말병’의 ‘말’이 ‘末’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13 가)에는 ‘오지그릇(말술)’도 보인다.

草)”로 『조선어사전』(1920)에서는 “最下等の刻煙草”로 풀이하고 있으며 현대의 사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막초’의 ‘막’은 ‘마지막’의 의미가 “질 낮은”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확장은 ‘막치01’의 뜻풀이에서도 확인된다. 즉 “‘1’ 되는대로 마구 만들어 질이 낮은 물건. ≡막치기01·조제품.”이라는 뜻풀이와 “‘2’ 마지막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의미가 다의 관계로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의 의미와 “질이 낮은, 안 좋은” 의미와의 유사성은 ‘막내’와 ‘망나니’가 같이 ‘막난이’에 기원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막난이’가 “‘막내아들’의 사투리”로 풀이되었고 『큰사전』에서는 “≡망나니”로 풀이하였다. 박일환 편(1994)에서도 ‘망나니’의 어원을 ‘막+낳은+이’로 풀이하였다. “‘막’은 ‘막되다’라는 뜻도 있고, ‘끝’이라는 뜻도 있다. 막되게 낳은 아리란 뜻에서 ‘망나니’가 갈라져 나왔다면 막둥이로 낳은 아이란 뜻에서는 ‘막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흔히 막내둥이가 망나니처럼 버릇없이 구는 것으로 보아서도 두 낱말의 어원이 같은 말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⁵⁾

2. ‘막걸리’의 내적 구조

‘막’이 결합되어 있는 음식명 중에서 그 내적 구조가 異質적인 것은 ‘막걸리’이다. 즉 ‘막국수, 막간장, 막장, 막과자, 막소주’ 등은 모두 ‘막+N(명사)’인데 ‘막걸리’의 ‘걸리’는 명사가 아니다. 전술했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막-07’의 용례로 ‘막거르다’를 들었고 ‘막걸리’의 어원 정보를 ‘[막+거르+·-이]’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사 또는 접두사³⁶⁾ ‘막’이 ‘거르다’를 수식하는 ‘막 거르다’가 어휘화하여 ‘막거르다’가 되고 여기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했다고 보는 것이다.

35) ‘莫無可奈’의 ‘莫’도 접두사 ‘막-’에 “마구”의 의미를 덧입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3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원정보를 나타낼 때 접사와 어미는 의존형태 표시(·)를 하고 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인칭 ‘내’에 대하여 ‘[나+·-이]’로 표시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부사 또는 접두사’라 하였다.

이러한 어원 정보에는 별 이견이 없다. 다만 ‘막거르다’의 뜻풀이를 ‘술밑을 चेना बे 따위로 짜서 거르다’라고 풀이하여 청주를 떠내지 않고 바로 거른다는 ‘막걸리’의 뜻풀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만약 ‘술밑을 चेना बे 따위로 짜서 거르다’라는 뜻풀이가 정확하다면 ‘막거르다’의 ‘막’은 ‘마구’의 의미로도 어울리고, 청주를 떠내고 남은 ‘술밑’이라 했으므로 전술한 ‘마지막’의 의미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6)에서 살펴 본 시조의 ‘막 걸리’는 “처음” 내지는 “방금”의 의미로 해석되고 청주를 떠내지 않고 바로 거르는 막걸리의 특징을 고려하여 ‘막거르다’를 이해하기로 한다.

산업화, 공업화의 진행과 함께 등장한 막소주는 전술했듯이 고급 소주와 상대되는 위치에서 ‘막’이 자연스럽게 “저급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 막소주는 그 동질성에 기인하여 막걸리와의 연관 속에서 유추되어 만들어진 이름일 것이라는 것과 막소주의 ‘막’이 “저급의”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면서 언중들에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던 막걸리의 ‘막’도 막소주의 ‘막’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해석되었으리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의 재해석은 ‘막’과 결합하는 특정 부류의 어휘군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막’이 단어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접두사로 발달하게 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음식명에 결합하여 있는 ‘막’이 어휘의 생성 단계에서 ‘막-’의 접사화 정도에 따라 기원적인 의미가 달랐다 하더라도 접두사로 발달한 현 단계에서는 ‘막-’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동일한 성격’은 의미의 동일성과 함께 결합 부류의 동일성도 함의하는데 이에 따라 원래는 [[막+거르]+이]의 구조였던 ‘막걸리’를 ‘걸리’가 무엇이든 간에 [막+*걸리]의 구조로 언중들에게 인식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걸리’의 불명확함보다 ‘막-’이 가지는 의미적 현저성이 언중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접사의 동일 어기 제약도 결국 이와 동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접사화 이전에는 결합 형태의 범주가 다를 수 있지만 접사화 이후에 새로 결합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 범주

여야 하며 이러한 동일 어기 제약에 의하여 과거에 결합한 이질적인 범주도 문법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 민중들에게는 동일하게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³⁷⁾ ‘막걸리’의 경우, 다른 음식명 명사와 달리 기원적으로 ‘막+V’의 구조였지만 ‘막’이 접사화한 후 다른 ‘막+N’ 음식명 어휘들과 동일한 내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결국 ‘막걸리’의 내적 구조에 대하여 ‘막+*걸리’로 파악한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설명은 접두사 ‘막-’의 사전 풀이에 있어 ‘막소주’와 ‘막걸리’를 현재 언중들의 의식과 부합하게 동일한 항목의 용례로 묶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³⁸⁾

V. 결론

이상으로 음식명에 붙는 접두사 ‘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막’은 “마구”, “(시간적으로) 방금”, “마지막” 등의 의미를 가지는 여러 동음이의어가 있는데 ‘막별다’, ‘막하다’, ‘막살다’, ‘막일’, ‘막별이’ 등의 어휘에서 직접 연

37) 최형용(2016: 352-3)에서는 부사에서 접두사화한 접사로 ‘막-, 맞-, 맨-’을 들고 ‘막-’ 파생어로 ‘막가다, 막거르다, 막별다, 막보다, 막살다, 막고무신, 막과자, 막국수, 막담배, 막소주’를 들고 있다. 그리고 명사와 결합하는 것에 대하여 접두사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이를 이유로 접두사화의 논거로 삼기도 하였다. ‘막-’의 의미나 문법화의 과정에 대하여는 차이를 보이지만 접두사화하면서 결합하는 어기의 범주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하는 바가 있다. 한편 백문식(2005)는 사전의 성격상 접두사 ‘막-’이 결합한 복합어로 ‘막가다, 막가루, 막가마, 막거르다, 막거름, 막걸다, 막걸리, 막고무신, 막고춧가루, 막과자, 막구들, 막국수, 막그릇, 막나이, 막노동, 막누더기, 막담배, 막대패, 막도장, 막돌, 막되다, 막두부, 막두부장, 막떼기, 막말, 막별이, 막배, 막불경이, 막붓, 막비지, 막사과, 막사발, 막살다, 막살이, 막써까래, 막서리, 막설탕, 막소금, 막소리, 막소주, 막숫돌, 막심기, 막쌍기, 막일, 막자갈, 막잡이, 막장, 막장단, 막주름, 막주춧돌, 막초, 막춤, 막치, 막토, 막품팔이, 막괘, 막해야, 막흙’ 등을 모두 모아 놓았는데 ‘막-’이 접사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결합하는 특정한 어휘군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한데 묶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분류에 대하여는 이후의 논의를 기약한다.

38) 『표준국어대사전』 ‘막-07’ 「2」번 뜻에는 ‘막별이’가 「3번」 뜻에는 ‘막별다’가 용례로 올라 있으며 표제어 ‘막별이’는 또 ‘막별-이’로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 방향에서 상충되고 있다. 이러한 상충은 언어학적인 분석과 일반 언중들의 감각적인 분석이 다른 데서도 원인이 있을 듯하며 이 원인이 잘 설명된다면 용인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막-’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면서 막별-이, 막살-이, 막걸리, 막-말이, 막깍이, 막-날이, 막잡이 등에 내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상되는 “마구”의 의미에서 접두사 ‘막-’이 발달하였다고 보아 왔다. 하지만 ‘막-’이 결합한 수많은 복합어들을 모두 이렇게 단순한 접사화의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현재 여러 사전의 뜻풀이와 그에 대응하는 용례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우연한 계기로 이러한 접두사 ‘막-07’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서 우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음식명을 중심으로 그 연원을 밝히고 그 안에 결합되어 있는 ‘막-’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막걸리, 막국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막’이 “(시간적으로) 방금”의 의미와 제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막간장, 막장’도 ‘막걸리, 막국수’의 ‘막’과 동일한 의미로 결합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유해한 가짜 간장이 ‘막간장’의 이름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유해 식품의 낙인이 찍혀 ‘막’이라는 형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졌고 막장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막과자, 막소주는 기업에서 고급 제품군과 차별적으로 저가의 제품군으로 대량 생산함에 따라 저렴, 저급, 저질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이들 음식명에 포함된 ‘막-’의 의미에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하였다.

3장까지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접두사 ‘막-’의 발달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접두사 ‘막-’의 범주적 인식이 있었으며 ‘막-’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산업화의 사회적 맥락 외에 언어 내적인 원인도 있다. 언어 내적인 원인으로 한 가지 설명한 것은 접두사 ‘막-’의 발달에 “마지막” 의미의 ‘막’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적 구조가 이질적인 ‘막걸리’도 ‘막’이 접사화한 이후에는 일반 언중들이 ‘막거르+이’가 아닌 ‘막+*걸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³⁹⁾ 주장하였다.

막걸리, 막국수 등의 음식명에 있는 ‘막-’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논문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접두사 ‘막-07’

39) 반대로 언중들이 ‘막+걸리’로 재분석하면서 접두사 ‘막-’의 발달에 발동을 걸었다는 설명도 가능한데 이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음식명 이외 사물, 행위 등에 결합하는 ‘막-’에 대하여 따로 살펴보고 접두사 ‘막-’의 형성과 사전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논의에서 현재 가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접두사 ‘막-’의 발달에 부사 ‘막(마구)’은 물론 시간적 의미의 ‘막’, 한자어 ‘막(莫)’, 마지막의 ‘막’ 등이 모두 관여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은유적 확대와 의미의 혼효를 통해 하나의 ‘심상의미(心象意味)’⁴⁰⁾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정한 격발에 의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논의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담화표지의 ‘막’의 출현에 대하여도 ‘막-’의 발달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參考文獻>

- 강명관(2010), 「냉면」, 『조선풍속사②-조선 사람들, 풍속으로 읽다』, 푸른역사, pp.153-165.
- 강은국(1993), 『조선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김영일(2003), 「역어유해(譯語類解) 속의 우리말 난해어」, <어문학> 80, pp.27-43.
- 김영철(2010), 「우리말 담화표지 ‘막’ 고찰」, <국어문학> 48, pp.5-22.
- 민현식(1991),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개문사.
- 박일환 편(1994), 『우리말 유래 사전』, 우리교육.
- 백두현(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 백문식(2005), 『우리말 파생어 사전』, 삼광출판사.
- _____ (2014), 『우리말 어원 사전』, 박이정.
- 서정범(2000), 『國語語源辭典』, 보고사.

40) ‘심상의미’는 이후 구체화되어야 할 개념인데 ‘당대인들에게 특정 음성 형식에서 떠오르는 포괄적인 느낌이 녹아든 의미’라고 정의해 두기로 한다. 현대의 ‘왕’, ‘꾼’, ‘개’, ‘간지’, ‘짱’ 등이 접두사, 부사 명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의미도 ‘심상의미’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밀한 정의와 설명은 후고를 기약한다.

- 송인성(2014), 「‘막’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 <한국어학> 65, pp.211~236.
- 안주호(2009), 「축약형 담화 표지 ‘쫌/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pp.199~203.
- 안효경(1994),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국어연구> 117,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3), 「접두사화에 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 13, pp.97~116.
- 이양혜(2003), 「한국어 파생접사에 나타난 인지 의미와 기능 변화 연구-명사파생 접두사에 한정하여」, <담화와인지> 10-3, pp.207~228.
- 이정애(2002), 「국어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 연구」, <우리말글> 26, pp.81~100.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春川國民學校 同窓會(1986), 『春川國民學校 八十五年史: 1906~1991』.
-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 홍윤표(1986), 「해제」, 『國漢會語(한국어학자료총서 1)』, 태학사.
- 한영우 · 안희준 ·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 천소영(2006), 「된소리 발음과 극단적 표현」, <새국어생활> 16권4호, pp.107~116.

<기타 자료>

각종 국어사전류는 본문 중 기술 참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춘천MBC(2016), 『춘천MBC 특별기획: 강원도 막』, 연출: 황병훈, 이상민.(2016년 9월 25일 첫 방영)

한국 언론 재단 고신문 라이브러리(<http://www.bigkinds.or.kr/mediagaon/goNewsKeyword.do>)

메모